寫壇

VOL. 585 www.kappa.co.kr



kppa 1955 PRO portrait

2026 10

9 772234 208002 10
ISSN 2234-2087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중고 카메라 거래 전문 플랫폼
HSC DNA

누적 거래 건수
50,000+ 건

가입 전문가 수
30,000+ 명

전문가의 선택,
정확한 가치 평가
최고가 매입
저렴한 판매



카메라의 가치는 제대로 평가 받아야 합니다.

전문 감정 시스템으로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매입해 드립니다.

사진작가 · 영상 전문가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중고 카메라 거래 플랫폼

- ✓ 전문 감정 시스템으로 정확한 가치 평가
- ✓ 다양한 판매 채널을 통한 최고가 매입
- ✓ 안전한 거래 시스템으로 안심 판매
- ✓ 판매 후에도 고객 케어 서비스 지원

카메라 · 렌즈
전 기종
최고가 매입

전문 감정 시스템
전문가의 정밀한 검수로 카메라와 렌즈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

최고가 보장
시장 데이터 기반 시세 분석으로 최고가 매입을 진행합니다.

빠르고 안전한 거래
무료 배송, 안전 포장. 당일 입금 원스톱 서비스

투명한 거래 시스템
거래 전 과정 실시간 확인으로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보장

전문 고객 지원
전문 상담원이 판매 전.후 모든 과정을 케어합니다.

Canon SONY Nikon FUJIFILM Panasonic SIGMA OLYMPUS
TAMRON Leica PENTAX RICOH HASSELBLAD Samyang ZEISS 외 다수 브랜드 취급

신용 / 정직 / 친절
HSC D&A
효성카메라 디앤에이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4
Tel. 02-752-9599
Fax. 02-771-6620

평일, 토요일, 공휴일 정상영업
영업 시간 : 09:00 ~ 19:00
일요일 휴무

HSCDNA.COM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가치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실의 계절, 만물이 가장 풍성한 빛깔로 무르익는 10월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스튜디오마다 오색단풍처럼 아름답고 따스한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옷깃을 여미게 되는 쌀쌀한 바람 속에서도, 거리마다 가을 하늘의 깊은 청색과 황금빛 들녘이 우리에게 말없이 위로와 감동을 건네는 때입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와 인공지능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입니다. 예로부터 사진은 마음의 거울이라 했습니다. 맑고 깊은 물처럼 사심 없는 마음으로 대상을 비춘다는 '명경지수(明鏡止水)'의 자세야말로, 우리 프로사진가들이 셔터를 누를 때 품어야 할 본질일 것입니다. 기술은 날로 발전하지만, 카메라를 통해 진정성 있는 교감과 감동을 담아내는 일은 오직 우리 프로사진가들의 가슴과 손끝에서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도약, 국내 최초 '디지털사진복원전문가 자격증'의 탄생

회원 여러분, 올 10월은 우리 협회에 결코 잊을 수 없는 가장 찬란하고 뜻 깊은 혁신의 달입니다. 수많은 고민과 끊임없는 열정 끝에, 우리 (사)한국프로사진협회는 드디어 국내 최초로 '디지털사진복원전문가 자격증'을 공식 등록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평면 속에 갇혀 있던 소중한 추억과 세월의 흔적을 생생한 입체적 숨결로 되살려내는 이 놀라운 기술은, 단순한 복원을 넘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위대한 예술적 성취입니다.

이것은 그림에 눈동자를 그려 넣어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화룡점정(畵龍點睛)'과 같이, 우리 사진인들의 전문성에 새로운 생명력과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더해주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대를 뒤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기술과 표준을 선도하며 사진 예술의 지평을 넓히고 있음을 증명하는 벅찬 순간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성과가 있기까지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땀 흘려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가치"

돌이켜보면 올 한 해도 우리 협회는 수많은 도전을 마주하며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 과정마다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협회를 향해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보내주신 전국 회원 여러분이 계셨기에 오늘날의 한국프로사진협회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10월은 결실의 달이자, 다가올 겨울을 차분히 준비하는 성찰의 달이기도 합니다. 남은 한 해 동안 우리 협회는 새로이 탄생한 '디지털 사진복원전문가 자격증'을 디딤돌 삼아, 회원 여러분의 권익 향상과 급변하는 시대를 선도하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발로 뛰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동행의 가치를 다시 한 번 깊이 새겨봅니다.

▸ 10월의 소망

오늘 하루 여러분의 스튜디오를 찾는 고객의 미소 속에서, 그리고 문을 나서면 만나는 가을 햇살 속에서 또 다른 사진의 미학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늘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비추고, 국내 최초의 역사를 써 내려간다는 자부심 속에서 사진가로서의 큰 보람을 누리시기를 응원합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10월의 가을날, 새로이 열린 비전의 길 위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회장 이경희

www.kappa.co.kr

Contents

Korea Professional
Photography Association
Magazine











권 두 언

03 이경희 회장

KPPA 소 식

06 이사회
08 이경희 회장 국제프로사진세미나 인터뷰
11 한국사진뉴스 업무협약(MOU)
13 디지털사진복원전문가 민간자격 등록
14 30년 사진 경험, 스마트폰 교육으로 꽃피우다
16 사진진흥법 김하영 위원장 특별 인터뷰
22 캐논 심사결과
23 캐논 금상
24 캐논 은상
25 캐논 동상

KPPA 인 상 사 진

28 박용호 작가
30 이정휘 작가
32 최병희 작가

KPPA 지 회 소 식

34 제67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 후기
35 2026 부산지회 연석회의

KPPA 풍경사진
36 권혁만 작가
38 이용일 작가
40 이희춘 작가

KPPA 교육
44 선배님의 사진, AI로 되살리다
46 보빙사 사절단
47 방치된 플레이스가 손님을 쫓아낸다
48 사진관의 새로운 도구 AI
50 Photoshop (소프트 글로우)
52 고객의 불편을 해결해주어라
54 성공하는 사진관을 만드는 생각

KPPA 타임머신
56 김미애 가족사진 논문
60 이덕용 현상사고
62 윤석희 마그네슘 시절의 추억
63 김귀환 작은소유권

편집후기
66 편집후기 및 퀴즈

ABOUT THE COVER

작품제목 시선강탈

작가노트 깊은 어둠 속에서 오직 피사체의 매혹적인 표정과 눈빛으로 보는 이의 시선을 완벽히 사로잡는 인물 사진. 블랙 배경과 의상이 주변의 시각적 요소를 정돈해 주며, 모자의 텍스처와 은은한 갈색 톤, 입술의 생기 있는 색감이 절묘한 대비를 표현하였다.



김갑수 작가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부회장 역임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이사 역임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자문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瑆 포토매니아 대표



寫壇 2026. 10. VOL. 585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주소 04930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91 사진회관
대표번호 02-4545-600 (FAX 02-4545-608)
홈페이지 www.kppa.co.kr
E-mail kppa1955@hanmail.net
웹하드 www.webhard.co.kr (ID kppa1955 / PW 1234)
계좌번호 301-0127-4083-41 (농협은행)
예금주 한국프로사진협회

발행인 이경희 회장
발행일 2026년 10월
창간일 1977년 9월 / 매월 25일 발행 / 월간 비매품
편집장 최병희 홍보위원장, 한장훈 편집국장
편집위원 이만식 부회장, 변준섭 사무처장, 김용우 홍보위원
인쇄·디자인 (주)미디어피앤피 02-903-2773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 사진 및 기타 콘텐츠의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 제3차 이사회

취재 변준섭 사무처장
사진 최병희 홍보위원장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회장 이경희)는 9월 16일 사진회관에서 2026년도 제3차(3·4분기) 이사회를 열고 6개 안건을 심의했다. 재적 이사 33명 가운데 현장 참석 20명과 위임 5명 등 25명이 참석해 성원이 보고됐으며, 회의는 4개 안건 가결, 1개 안건 부결로 마무리됐다.

이날 이사회의 최대 성과는 제5호 안건으로 상정된 「정관 및 규정 등 재개정 TF 구성·운영의 건」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이다. 협회가 71년간 축적해 온 정관과 9개 규정 사이의 상충 조항을 전면적으로 손보는 첫 공식 작업으로, 현 집행부와 차기 회장 당선인이 함께 추진하기로 하면서 임기 교체기의 연속성도 확보했다.

개회 — 세미나 노고 치하와 쾌유 기원

이경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제67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를 준비한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최근 불의의 사고로 척추 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 중인 강원 지역 박수만 이사의 소식을 전하며 "두 달가량 회무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큰 부상이 아니어서 다행이며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회장은 "추석을 앞두고 모든 회원이 건강하게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인사를 갈음했다.

제1호 — 전차 회의록 승인

제1호 안건인 전차(2·4분기) 회의록 승인의 건은 상근이사 인준 및 보수 책정 절차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지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회의록에 상임이사 보수 절차 부분만 기재된 경위, 예산 의결과 집행 절차의 적합성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논의 끝에 이사회는 지적된 사항-보수는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을 삭제해 회의록을 수정하고, 동의·재청을 거쳐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편 김동한 총무위원장은 앞으로 상근직이 아닌 비상근 임원으로 활동할 것을 밝혔다.

제2호 — 제67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 결산

재무위원장이 보고한 제67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8월 24~26일) 결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보고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수입·지출을 모두 제외한 세미나 자체 수지는 약 873만 원 흑자로 집계됐다. 전년도 잉여금 약 1,244만 원보다는 다소 줄어든 규모다. 회원 참가비는 411명 기준 약 7,570만 원(전년 433명·약 7,895만 원), 기자재 업체 참가는 27개사로 약 2,744만 원이 유입됐다. 협찬품은 4,000만 원 이상을 확보해 내빈 선물비 등 일부 지출 항목은 집행 없이 협찬으로 대체됐다.

질의응답에서는 경품용 카메라 구입비가 이사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상당 폭 초과한 점, 기자재 업체별 협찬 배분의 형평성, 일부 지출 항목의 계정 표기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에 집행부는 "다른 항목에서 절감분이 발생해 회원 환원 차원에서 경품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향후에는 예산과 결산을 1대1로 대응시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

제3호 — 2027년 제68회 세미나 장소 선정(안)

제3호 안건은 명칭을 「장소 선정의 건」에서 「장소 선정(안)」으로 수정한 뒤 통과됐다. 개최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사전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이 강조됐다.

총무위원장은 "올해는 장소 협의가 늦어지면서 계획했던 지자체 지원 예산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한 애로가 있었다"며 안건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집행부는 올해 확보액을 기준으로 내년에는 증액 신청을 추진하되, 최종 개최지 결정은 차기 집행부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4호 — 이사 해임 및 선임의 건, 부결

이날 회의에서 가장 긴 시간이 할애된 안건은 제4호 「이사 해임 및 선임의 건」이었다. 복수 이사의 요청으로 심의 순서가 제1호보다 앞당겨졌으며, 연 이사회 2분의 1 이상 불참 이사에 대한 해임 심의와 선거 과정에서 제출된 사임 건, 신규 이사 선임 인준이 함께 다뤄졌다.

쟁점은 사임 의사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였다. 총회에서 의결·선포된 사항과 이사회 의결의 효력 관계, 해임과 자발적 사직의 구분, 선거관리위원회가 협회에 보낸 정정 협조 요청 공문의 처리 방법 등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정관상 임원 해임은 이사회 의결사항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이 사안을 당일 처리할지 4/4분기 이사회로 이월할지에 대한 견해가 갈렸다.

약 1시간 30분에 걸친 토론 끝에 부결 동의와 재청이 성립되면서 제4호 안건은 부결됐다. 집행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의견을 조회한 뒤 그 내용을 문서로 확보해 4/4분기 이사회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5호 — 정관·규정 재개정 TF 구성 및 운영

제5호 안건 설명에서는 현행 정관과 9개 규정 사이에 실제로 존재하는 상충 사례가 제시됐다. 총회 구성에 관한 정관 조항과 선거권자 범위를 정한 조항이 서로 다르게 읽히는 문제가 대표적으로 지목됐다.

TF의 검토 방향은 네 가지로 제시됐다. ①정부·지자체 사업 참여와 정책자금 지원에 현행 정관이 유효하게 작동하는지 ②지정기부금단체 전환 검토 ③정관과 각 규정 간 일관성 있는 조정 ④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보완 요소 확인이다.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정관 정비의 취지에는 100% 공감한다"며 "조문마다 제정 배경과 선례가 함께 설명된 정관 해설집이 있어야 한다. 71년 역사에 걸맞은 정비된 정관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다만 남은 기간 안의 작업 완료 가능성, 구성원 인선, 소요 예산은 차기 집행부가 떠안게 되는 부담이라는 점을 들어, 회장과 당선인에게 인선·예산을 위임해 합리적 범위에서 협의·추진하자는 수정 제안을 냈다.

이사회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동의·재청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심의 과정에서 원로 회원을 "팀장"이 아닌 "고문"으로 예우해 모시는 것으로 직위 명칭이 조정됐다. 실무는 법제위원장을 중심으로 하고 전문가 그룹과 외부 시각을 함께 반영하기로 했으며, 별도 예산 없이 원거리 참석자의 여비와 식비 수준에서 운영하기로 정리됐다. 논의 결과는 4/4분기 이사회에 보고되며, 규정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즉시 시행하고 정관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치게 된다.

회장은 모든 안건을 다룬 후 폐회 동의 재청을 거쳐 폐회를 선언했다.


이경희 회장



정태민 차기회장


사회 김동한 총무위원장


홍상표 재무위원장


박수열 법제위원장



이사회 모습


김하영 사진진흥 위원장


장광동 감사

interview

이경희 회장 국제프로사진세미나 인터뷰



제67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를 마치고 “회원과 함께 만든 2박 3일, 사진인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다”

| 취재 나영균 기획위원장

(사)한국프로사진협회는 2026년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 모나 용평에서 「제67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개강식, 제41대 협회장 선출총회, 교육, 관광, 촬영대회, 추천·초대작가전 및 독도 사진전, 기자재 전시, 사진인의 밤과 폐강식 등이 진행됐다. 모든 일정을 마친 이경희 협회장에게 준비 과정과 성과, 회원권 및 참여상의 취지, 아쉬웠던 점과 앞으로 협회가 준비해야 할 과제를 듣는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국의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7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는 2026년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 모나 용평에서 뜨거운 열정 속에 치러졌습니다.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지금, 제 마음속에는 오직 여러분을 향한 깊은 감사와 감동만이 가득합니다.

질문 1

제67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가졌던 기대와 걱정은 무엇이었으며, 2박 3일의 모든 일정을 마친 지금 가장 크게 느끼는 소회는 무엇입니까?

2박 3일의 여정을 마치며: 함께 이뤄낸 기적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는 기대만큼이나 걱정도 컸습니다. 급변하는 사진 산업 환경 속에서 과연 우리 회원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 무더운 날씨와 방대한 일정 속에서 안전하게 행사를 마칠 수 있을지 노심초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막이 오르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회원 여러분의 초롱초롱한 눈빛과 뜨거운 함성을 마주한 순간, 그 모든 걱정은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개강식부터 제41대 협회장 선출총회, AI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의 촬영대회와 평창 관광, 추천·초대작가전 및 독도 사진전, 그리고 전국 16개 지회가 하나 되어 어우러진 '사진인의 밤'까지 모든 순간이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였습니다.

폐강식장에서 여러분의 환한 미소를 바라보며 “아, 우리 사진인 들은 역시 하나일 때 가장 강하고 아름답구나”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질문 2

이번 행사 기간에 열린 제41대 협회장·감사 선출총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며, 새롭게 출범할 제41대 집행부와 회원들에게 어떤 기대하고 계십니까?

화합과 도약의 장, 그리고 새로운 집행부를 향한 기대

이번 행사 기간에 열린 “제41대 협회장, 감사 선출총회”는 우리 협회의 민주적인 역량과 성숙함을 증명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선거를 치르며 잠시 긴장감이 돌기도 했지만, 결과가 발표된 이후 승자와 패자 구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협회’로 다시 뭉치는 회원 여러분의 모습에서 진정한 사진인의 품격을 보았습니다.

새로 출범할 제41대 집행부와 정태민 회장 당선인께서 우리 협회의 전통을 굳건히 계승하고, 다가오는 사진진흥법 시행 시대와 AI 등 급변하는 산업 변화에 발맞추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께서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3

사진진흥법 시행과 급변하는 사진 산업 환경을 앞둔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를 향한 교육과 동행

제67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 시점에서, 다가오는 '사진진흥법' 시대는 우리 일선 사진관들에 위기이자 동시에 새로운 도약의 커다란 기회입니다.

법적 제도권 안에서 우리 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묵묵히 카메라를 잡고 계신 회원분들께 당장 가장 시급하게 강조하고 싶은 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변하는 시각 예술의 흐름 속에서, 우리만의 '대체 불가능한 본질(Originality)'을 확립해야 합니다.

질문 4

AI와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프로 사진가와 사진관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가치와 방향은 무엇입니까?

"기술을 넘어선 감성과 철학의 무기화"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손쉽게 보정하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프로 사진가들은 기계가 흉내 낼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조명, 현장의 공기, 그리고 고객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사진에 담아내야 합니다. 기술적 결과물 판매를 넘어 '이야기와 가치를 파는 공간'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질문 5

사진진흥법 시행을 계기로 회원 사진관의 전문성과 사회적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진진흥법에 발맞춘 전문성 재정립"

사진진흥법의 시행은 곧 우리 업역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국가로부터 공인받는 계기가 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스튜디오의 법적·제도적 기준을 점검하는 동시에,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트렌드 분석으로 '동네 사진관'을 넘어 '지역 사회의 문화 예술 공간이자 사진전문가'로 거듭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 6

이번 세미나에서는 회원 복지와 사진산업 발전, 정보·홍보 협력을 위해 플란치과·유쾌한생각·한국사진뉴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한국사진뉴스는 협회의 자매 매체로서 사진진흥법 관련 정책과 정보를 신속히 전하고, 회원 작가와 스튜디오의 활동 및 브랜딩을 지원하는 역할이 기대됩니다. 이러한 협력과 상생의 네트워크가 회원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며, 앞으로 협회는 이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생과 연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혼자만의 힘으로는 거대한 시장 변화를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한국프로사진협회"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함께 연대하여 공동의 마케팅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갈 때 비로소 사진진흥법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세상을 기록하는 가장 위대한 예술이자 역사입니다. 우리 회원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 사진 문화의 뿌리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다가올 미래를 더욱 당당하게 열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멀리서 찾아와 주신 장애인 사진동아리 '행복줌인' 친구들과의 동행,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회원과 기자재업체 관계자분들이 첨단 기술 정보를 나누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협회의 지평이 한층 더 넓어졌음을 실감했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세심하고 명확한 소통으로 모든 회원분께 더 큰 기쁨과 혜택이 돌아가도록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질문 7

이번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임원과 관계자, 기자재업체와 회원들에게 어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제67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주신 집행부, 임원진, 위원회, 그리고 전국 16개 지회장님과 운영 관계자 여러분,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기자재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응원을 보태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도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문 8

2박 3일의 여정을 함께한 전국의 회원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한국프로사진회원 여러분 이번 2박 3일은 단순히 세미나를 다녀온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사진인 들이 손을 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발을 내디딘 감동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이 시간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자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한국프로사진협회"의 이름으로 더욱 당당하게 빛나실 여러분의 앞날을 늘 응원하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진심 어린 소통으로 협회의 미래를 준비하기를

이번 인터뷰를 통해 이경희 협회장이 여러 변화와 과제가 겹친 불안정한 시기에 행정의 중심을 잡고, 협회의 미래를 위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밖에서 바라볼 때는 협회장의 결정과 그 과정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직접 마주 앉아 현안과 고민을 차분히 나누고 합리적으로 소통해 보면, 협회를 향한 그의 진심과 책임감을 이해할 수 있다. 모든 결정이 모든 회원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며 성과와 함께 아쉬움도 남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판단하기에 앞서 대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협회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모아가는 일일 것이다.

남은 임기 동안 중앙회와 16개 지회, 현장의 회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면서 사진진흥법 시행에 대비해 협회가 준비해야 할 정책과 제도, 교육, 회원 권익 및 사진산업의 미래를 함께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기를 바란다.

필자는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기획위원장으로 이번 세미나를 총괄하며, 동시에 한국사진뉴스 대표로서 협회와 업무협약을 맺는 뜻깊은 출발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이 일회성 행사에 머물지 않고, 한국사진뉴스가 협회의 자매 매체로서 사진진흥법 관련 정책과 현장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회원 작가와 스튜디오의 활동을 기록·홍보하며 브랜딩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책임도 무겁게 느낀다. 협회를 사랑하는 한 사람의 회원으로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그 역할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큰 보람이었다.

이번 인터뷰는 한 사람의 공과를 평가하는 자리를 넘어, 진심 어린 대화와 합리적인 소통이 협회의 신뢰와 화합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이경희 협회장의 협회를 향한 진심이 회원들과 충분히 공유되고, 남은 임기 동안 그 뜻이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경희 회장

한국사진뉴스 업무협약(MOU)



| 취재 나영균 기획위원장

(사)한국프로사진협회와 한국사진뉴스의 업무협약(MOU)은 두 기관의 이름을 함께 알리는 형식적인 협약이 아니다. 사진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협회의 정책과 사업을 회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며, 회원 작가와 사진관·스튜디오의 전문성과 성과를 사회에 알리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의 출발점이다.

AI와 디지털 기술로 사진산업이 빠르게 변하면서 저작권·초상권, 촬영업의 생존권, 공공사진사업, 교육과 일자리 등 함께 준비할 과제도 많아졌다. 법과 정책, 지원사업을 회원들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현장 정보로 전달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사단지와 한국사진뉴스, 서로를 보완하는 두 기록

사단지는 협회의 역사와 주요 사업, 회원의 작품과 활동을 깊이 있게 보존하는 공식 기록 매체다. 한국사진뉴스는 현장 소식과 정책 변화를 신속히 전달하고 협회와 회원의 활동을 국민과 문화예술계,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사진산업계에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두 매체는 경쟁하거나 어느 한쪽을 대신하지 않는다. 사단지가 협회의 역사와 정체성을 축적한다면, 한국사진뉴스는 그 기록을 사회와 연결해 확산하는 상호보완적 매체다.

회원 한 사람의 활동도 소중한 뉴스가 되어야

협회의 힘은 전국 각 지역에서 묵묵히 활동하는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작품과 전문성, 사진관의 역사와 도전이 모여 만들어진다. 그러나 뛰어난 기술과 작품을 갖고도 자신을 알릴 기회가 부족한 회원이 많다.

한국사진뉴스는 회원의 작품세계와 전시·수상·교육·사회공헌 활동, 사진관과 스튜디오의 전문 분야와 촬영철학을 소개하고자 한다. 회원의 이름과 작품이 사회적 신뢰와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는 '사진인 브랜딩'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다.

지회 활동을 먼저 기록하는 소통망

한국사진뉴스의 지역기자는 각 지회의 공식 활동과 회원 소식을 우선 취재·기록하며, 지회와 중앙회 및 지역사회를 잇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사진인의 권익과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두 기관은 사진진흥법과 사진정책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중앙회와 16개 지회의 활동을 기록해야 한다. 회원 작품과 사진관의 우수사례, 저작권·초상권·AI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등 현장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업무협약은 체결식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약속이 지속적인 기록과 정책정보, 회원 홍보로 이어져 회원이 변화를 체감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중앙회와 지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기대한다.

협회를 사랑하는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는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기획위원장으로 세미나를 총괄하고, 한국사진뉴스 대표로서 협약의 출발을 함께했다. 무엇보다 협회를 사랑하는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협약이 회원에게 도움이 되고 협회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책임 있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마음이 크다.

한국사진뉴스는 단순한 홍보수단에 머물지 않고 현장을 성실히 기록하며 회원의 목소리를 사회와 연결하는 신뢰받는 사진 전문 언론이 되어야 한다. 사단지와 한국사진뉴스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협력한다면 사진인의 자긍심을 높이며 사진진흥법 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사진복원전문가’ 민간자격 등록



사진진흥법 시행 대비…
AI 기반 사진복원 전문인력 양성과 회원 직무영역 확대 추진

| 취재 이경희 회장

(사)한국프로사진협회(회장 이경희)가 ‘디지털사진복원전문가’ 민간자격의 자격 발급기관으로 등록되며,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사진 전문인력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 따르면 ‘디지털사진 복원 전문가(Digital Photo Restoration Specialist)’ 자격은 등록번호 제2026-006361호로 등록됐으며, 자격 발급기관은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주무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다.

이번 자격 등록은 사진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사진 인의 전문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한편, 급변하는 디지털 사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 영역과 교육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디지털사진 복원 전문가는 사진복원에 관한 전문 이론과 실무 기술을 바탕으로 훼손된 사진을 분석하고, 인공지능 기술과 다양한 복원 기법을 활용해 사진을 복원·리터칭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자격이다. 복원 결과물의 관리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을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까지 포함한다.

1급·2급으로 구분해 전문성과 현장 활용성 강화

디지털사진 복원 전문가 자격은 직무 수준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1급은 사진 분야의 전문 지식과 고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훼손되거나 열화된 과거 사진을 분석·복원하고, AI 정밀 복원과 입체 복원 등 특수기법을 적용하는 사진복원 실무 기술을 교육·지도하는 전문가 과정이다.

2급은 사진 분야의 기초지식을 기반으로 디지털 사진복원의 기본 리터칭, AI 기반 기초 복원, 색상 보정, 출력, 디지털 데이터 보존·관리 등의 실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다.

협회는 향후 자격 운영 규정과 교육과정, 검정 기준, 평가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사진관과 스튜디오 종사자, 사진작가, 사진 교육자,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전문교육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구체적인 교육 및 검정 시행 일정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오래된 사진을 복원하고 국민의 삶과 기억을 보존하는 전문 영역

사진복원은 단순히 낡거나 훼손된 사진의 외형을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에 그치지 않는다. 개인과 가족의 소중한 기억을 되살리고, 지역사회의 역사와 생활 문화, 공공기관과 단체가 보유한 기록사진을 보존하는 중요한 전문 영역이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과거보다 정교하고 효율적인 사진복원이 가능해졌지만, 원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판단과 색채·계조·질감에 대한 사진 인의 전문성, 윤리적인 AI 활용 기준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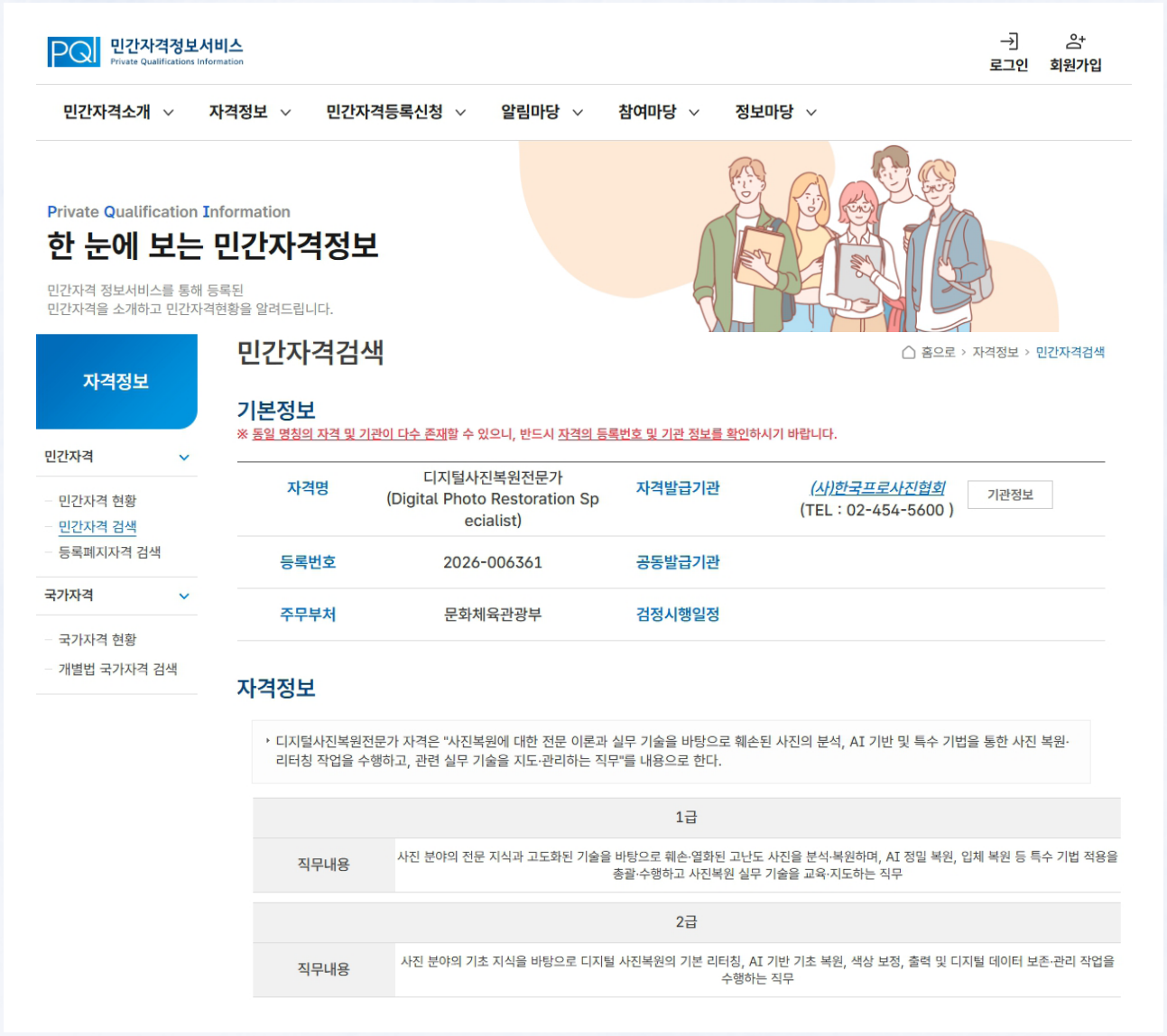
이에 따라 협회는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법을 넘어 사진의 역사적·기록적 가치를 이해하고, 원본을 존중하고 책임 있게 복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사진진흥법 시대 대비한 사진 인의 새로운 직무 기반 마련

사진진흥법은 사진을 문화예술의 중요한 영역이자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법 시행을 앞둔 지금 사진계에는 사진 산업의 변화에 대응할 전문교육, 직무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사진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사)한국프로사진협회는 이번 디지털사진 복원 전문가 자격 등록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의 하나로 보고 있다. 협회가 보유한 사진 전문성과 전국적인 회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진복원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회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현장 업무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진관과 스튜디오가 기존의 증명사진·가족사진·행사사진 촬영을 넘어 오래된 가족사진 복원, 인물사진 보정, 지역 기록사진 복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 다양한 전문 서비스로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경희 회장
"회원의 전문성과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하겠다."

이경희 회장은 "디지털사진 복원 전문가 자격 등록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변화 속에서 사진 인의 전문성을 새롭게 확장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사진진흥법 시행에 발맞춰 회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를 현장 경쟁력과 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체계를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진복원은 국민의 소중한 기억과 우리 사회의 역사적 기록을 보존하는 뜻깊은 일"이라며 "협회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사진복원 인력을 양성하고, 올바른 AI 활용 문화와 사진 윤리를 확립하는 데도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사)한국프로사진협회는 이번 자격 등록을 시작으로 사진진흥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과 자격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사진 인의 권익 향상과 직무 확대, 사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자격 정보

- 자격명: 디지털사진 복원 전문가
- 영문명: Digital Photo Restoration Specialist
- 등록번호: 제2026-006361호
- 자격 발급기관: (사)한국프로사진협회
- 주무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자격 등급: 1급·2급
- 자격 성격: 등록 민간자격

※ 본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이며, 국가가 공인한 국가 공인 민간자격을 의미하지 않는다.

30년 사진 경험, 스마트폰 교육으로 꽃피운다.

사진을 찍어온 인생에서, 이제는 사진을 가르치는 인생으로

| 취재 나영균 기획위원장


김희덕 교육자격이사

김희덕 교육자격이사는 최근 열린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제67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에서 '스마트폰 사진강사 되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단순히 스마트폰 카메라 사용법을 알려주는 교육을 넘어, 오랜 시간 사진을 업으로 살아온 프로사진가들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제2의 직업으로 사진 교육에 도전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스마트폰은 새로운 사진교육 도구

김희덕 이사는 강의에서 "스마트폰은 카메라가 아니라 새로운 교육 도구"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본적인 기능을 익히는 것에서 출발해 인물사진, 가족·일상 사진, 여행. 풍경 사진, 음식. 상품 사진, 사진 보정과 AI 활용 등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또한 스마트폰 교육에서는 전문 카메라의 어려운 용어를 그대로 설명하기보다 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전문 카메라의 조리개와 심도에 대한 개념을 스마트폰에서는 "배경을 흐리게 만드는 기능"으로 설명하고, 노출은 "사진의 밝기를 조절하는 것", 구도는 "사람과 공간을 보기 좋게 배치하는 것"으로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사진을 처음 접하는 중장년층이나 시니어들에게 특히 효과적이다.

사진 교육을 준비할 때 큰 글씨와 큰 화면을 사용하고, 천천히 설명하며, 반복해서 실습하고, 스마트폰 기종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 역시 일방적인 설명에 머물지 않는다. 김 작가는 자신이 제시한 교육방식으로 설명 30%, 시연 30%, 실습 40%의 비율을 제안했다. 학습자가 직접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하면서 자신의 사진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진가는 이미 훌륭한 강사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번 강의에서 특히 강조된 부분은 프로사진가가 가진 경험 자체가 교육의 자산이라는 점이다. 오랜 시간 사진관과 촬영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상황에서 사진을 촬영해 온 사진가라면 이미 인물의 표정과 자세를 보는 능력, 빛을 판단하는 능력, 촬영 현장을 진행하는 능력, 고객과 소통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김 이사는 이러한 경험에 강의 구성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더한다면 새로운 사진 강사로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좋은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진 실력만큼이나 말하기, 보여주기, 촬영하기, 편집하기, 꾸준히 콘텐츠를 만드는 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강의자료를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며, 강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능력을 강조했다. 강사의 자세와 표정, 목소리, 시선, 손동작 등 비언어적 표현 역시 학습자의 집중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소개했다. 결국 좋은 강의는 지식을 전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사와 학습자가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강사 김희덕


인물사진 강의


초상권 강의





촬영대회 참가

사진 강사로 가는 길, 자신의 이력을 만들어라.

사진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진 실력과 교육 경험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방법으로 (사)한국프로사진협회의 추천작가·초대작가 활동을 비롯해 촬영대회, 공모전, 지상 공모전 등에 참여해 수상과 활동 기록을 꾸준히 쌓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사진 관련 강의와 전시, 심사위원 활동 등도 강사로서 자신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경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자격증 하나를 취득하는 것보다 사진가로서의 실제 활동 경험과 교육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사진 강사에서 영상강사로

이번 강의는 사진 교육에서 끝나지 않았다. 최근 사진과 영상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는 만큼 사진 강사가 영상교육까지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사진 촬영은 물론 동영상 촬영과 편집, 유튜브 콘텐츠 제작까지 가능해지면서 사진가가 가진 시각적 감각은 영상에서도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상 강의를 어렵게 생각하기보다 검색하고, 시청하고, 따라 해보는 과정부터 시작할 것을 권했다. “처음부터 완벽한 영상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3분짜리 영상 강의 한 편부터 만들어보자”라는 것이 김 작가가 제시한 실천 방법이다.

사진가는 사진을 찍는 사람을 넘어 가르치는 사람으로

김희덕 이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사진가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AI 시대를 맞아 사진 제작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 사진을 통해 사람과 세상을 바라본 경험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자산이다. 특히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사진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전문 사진가가 자신의 경험을 일반인에게 쉽게 전달 할 수 있는 기회도 더욱 커지고 있다.

“아마추어는 걱정하는 대로 되고 프로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사진가들의 적극적인 도전을 당부했다. 사진을 찍어온 오랜 경험을 새로운 교육 콘텐츠로 만들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사람들에게 사진의 즐거움을 알려주며, 나아가 영상까지 영역을 확장한다면 사진가의 미래는 더욱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체장애인협회 사진·영상 강의 모습



촬영대회에 참가한 울산지회 회원들과 함께

interview

사진진흥법 김하영 위원장 특별 인터뷰

사진진흥법 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실익으로 완성할 때

| 취재 나영균 기획위원장

오랜 시간 전국 사진인들이 한마음으로 염원해 온 '사진진흥법'이 마침내 제정되었다. 하지만 법 제정이라는 결실 뒤에는 '이를 어떻게 현장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바꿀 것인가'라는 더 중요한 과제가 놓여 있다. 법 제정의 최전선에서 뛰어온 김하영 사진진흥위원장을 만나, 법 제정의 의의와 문체부 실태조사 착수에 따른 협회의 대응 전략, 그리고 회원들에게 돌아갈 실질적인 미래 청사진을 들어보았다.



(사)한국프로사진협회(회장 이경희) 사진진흥위원회 김하영 위원장이 제67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에서 사진진흥법 경과를 보고하고 있다. (사진: 복지정책위원회 제공)

Q1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사진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사진진흥법'이
마침내 제정되었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텐데요,
이번 법 제정이 사진계에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진진흥법 제정을 위해 정태민 회장 당선인과 국회와 정부 부처를 쉼 없이 찾아다니며 현장의 절박함을 알렸던 수많은 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사진은 단순한 예술 장르를 넘어 문화이자 산업이며 국민의 삶과 역사를 기록하는 귀중한 사회적 자산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결국 사진계 전체가 힘을 모아 새로운 정책적 기반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 제정이 사진계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사진산업이 저절로 발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법에 근거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실태조사, 예산과 구체적 사업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제 우리 협회의 역할은 '사진진흥법을 만든 협회'에서 '사진진흥법을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실행해내는 협회'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Q2

법 제정 이후 가장 주목할 만한 즉각적인 변화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진 분야 실태조사' 착수를 꼽으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분기점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사진 분야 실태조사 및 사진진흥 중장기 정책 연구」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단기 연구용역 하나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사진이 국가 문화정책 안에서 '독립된 정책 대상'으로 공식 안착하는 역사적인 과정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부를 상대로 정책을 건의할 때마다 가장 큰 벽에 부딪혔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전국 사진관이 몇 개소인가?", "산업 규모와 종사자 수는 얼마인가?", "AI 시대에 현장이 겪는 위기와 필요 교육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제시할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가 단위 기초자료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바로 그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진 정책의 든든한 뼈대를 세우는 첫 번째 기회이자 결정적 분기점입니다.

Q3

이번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 과정에서 우리 협회가 집중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핵심은 단 하나, "현장의 목소리를 객관적인 정책 데이터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전국 방방곡곡의 사진관과 사진인들을 하나로 잇는 전국 조직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학술기관이나 외부 연구기관도 쉽게 갖출 수 없는 우리 협회만의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사진관이 너무 어렵습니다"라는 하소연에 머물러서는 정부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전국 사진관의 실제 경영 환경, AI 기술의 현장 도입 실태 및 애로사항, 스튜디오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재교육 분야, 청년 사진인의 진입 장벽과 지역 사진문화의 사회적 가치 등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정책적 근거 데이터로 정부에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을 이끌어내는 힘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와 정책적 논리에서 나옵니다.

Q4

그렇다면 법 제정과 정책 연구를 통해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첫 번째 실익'은 무엇이 될까요?

가장 빠르고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는 바로 '사진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AI와 디지털 전환의 파고 속에서 사진산업에는 완전히 새로운 교육 체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통적인 촬영 테크닉만 가르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 생성형 AI 툴 활용 및 디지털 이미지 워크플로우
- 사진 저작권 및 초상권·개인정보 보호 실무
- 사진 아카이빙 및 디지털 자산 관리
- 스마트 고객관리와 온라인 마케팅

현장 사진관들이 당장 영업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 교육이 절실합니다. 문체부가 향후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협회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교육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하는 기반을 만들 것입니다. 이는 타 부처와의 복잡한 조율 없이 문체부 진흥 정책 내에서 곧바로 추진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5

교육 외에도 회원 스튜디오와 지역 지회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기회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두 번째 실익은 '사진문화 공모사업의 확대'입니다.

사진진흥법의 핵심 취지 중 하나는 사진문화의 발전과 향유입니다. 향후 문체부 주관의 국비 공모사업 형태로 지역 사진문화사업, 청소년 사진교육, 사진 기록문화 및 아카이브 사업, 세대 간 사진 기록사업, 지역 사진문화 축제 등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전국 조직망을 갖춘 우리 협회가 이를 주도적으로 기획·수행하거나 지역 지회 및 회원 사진관들과 연계한다면, 회원들에게 직접적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및 창작 기회가 창출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실태조사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정기적인 조사 체계로 정착시켜 협회의 정책적 위상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Q6

신분증 사진 규격 제도 개선이나 사진관 인증제 등 현장의 민감한 숙원 과제들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공공 신분증 사진 제도 개선, 사진관 인증제, 공공기관 촬영 제도 정비 등은 회원들의 생계와 직결된 핵심 과제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은 행정안전부, 외교부, 경찰청 등 다부처 간의 법령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당장 단칼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책의 순서와 전략'을 영리하게 세워야 합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요구하기보다, 우선 문체부 내에서 실현 가능한 교육사업, 문화사업, 실태조사, 아카이브 사업을 성공시켜 확실한 정책적 실적을 축적해야 합니다. 그렇게 쌓인 정부와의 신뢰와 객관적 통계를 지렛대 삼아 타 부처와의 제도 개선 협상 테이블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돌파구입니다.

Q7

앞으로 정부와의 관계에서 협회가 가져야 할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는 사진진흥법을 단순히 '정부 지원금을 타내는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협회를 수많은 이익집단 중 하나로만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의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협회는 '사진산업의 최전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최고의 전문 정책 파트너'여야 합니다. 정부가 사진 관련 정책을 입안할 때 "한국프로사진협회와 상의하면 현장을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절대적인 신뢰를 얻어내는 것, 그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회원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호막이자 실익입니다.



Q8

마지막으로, 사진진흥위원회가 추진할 핵심 목표와 함께 전국의 회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협회 사진진흥위원회는 다음의 5대 핵심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 **사진진흥위원회 5대 실천 과제**

❶ **사진산업 통계 데이터 확보 :**
국가 공인 실태조사를 통한 객관적 기초 데이터 구축

❷ **전문인력 양성기관 구축 :**
AI·디지털 전환 시대 맞춤형 실무 재교육 체계 확립

❸ **사진문화 국비 공모사업 창출 :**
회원 스튜디오와 지역 지회가 주체가 되는 지원사업 확보

❹ **기록문화 및 아카이브 확대 :**
지역사회와 세대를 잇는 공공 사진 기록사업 주도

❺ **정부 대체불가 정책 파트너 확립 :**
단순 지원 요구를 넘어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위상 정립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법 제정의 환호는 어제로 족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구호가 아닌 '냉철한 실행력'입니다. 사진진흥법이라는 소중한 도구를 회원 여러분의 스튜디오 현장을 바꾸고 권익을 신장시키는 실질적인 열매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협회가 추진하는 실태조사와 정책 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회원의 생각을 하나로 모을 때 협회의 새로운 길이 열린다"

김하영 사진진흥위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사)한국프로사진협회(회장 이경희)의 발전은 몇몇 임원이나 위원회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이다. 협회의 모든 사업과 정책은 회원들의 현실적인 요구에서 출발해야 하며, 회원이 직접 참여하고 힘을 보탤 때 비로소 현장에서 필요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진산업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 촬영시장의 다변화, 저작권과 업권 문제, 사진진흥법 시행 준비 등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협회가 회원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현장의 어려움과 바람을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해야 한다.

이경희 협회장 역시 앞으로 협회가 단순히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을 유지하는 역할을 넘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사업 기회를 발굴하며 사진인의 전문성과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향을 갖고 여러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진흥법 시행에 따른 정책 대응을 비롯해 사진산업 기초자료와 회원 전문분야 데이터 구축, AI와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교육, 회원과 사진관의 홍보·브랜딩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참여 확대, 지회 및 회원 간 정보교류 활성화 등은 앞으로 협회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협회 내부의 구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협회에 바라는 변화와 새로운 제안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회원들의 서로 다른 생각을 듣고 토론하며 공통의 과제로 정리하는 과정이 있어야 협회의 정책도 현실성과 실행력을 갖출 수 있다.

회원이 있어야 협회가 존재한다. 협회의 주인은 회원이며, 협회의 힘 또한 회원의 관심과 참여에서 나온다. 지금은 흩어져 있는 회원들의 생각과 바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할 때다. 중앙회와 전국 지회, 각 위원회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회원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그 결과를 사업과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회원들께서도 협회가 무엇을 해주기만을 기다리기보다, 협회의 변화와 발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현장의 문제를 알리고 좋은 의견을 제안하며 교육과 사업, 지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작은 실천이 모일 때 협회는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김하영 사진진흥위원장의 인터뷰가 진흥위원회의 역할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협회의 미래를 위해 회원들이 무엇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협회장과 집행부, 위원회가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회원들은 협회의 정책과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상호 신뢰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제 협회는 회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 생각과 바람을 하나로 모아 공동의 목표로 발전시켜야 한다.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협회의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다시 회원의 권익과 새로운 기회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사진진흥위원회가 회원과 협회를 연결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과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회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참여할 때 (사)한국프로사진협회는 변화하는 사진환경을 이끌며 사진인의 미래를 준비하는 든든한 구심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추억을 2배로 남기는 방법

HP5 PLUS 일회용 흑백필름 카메라

1+1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photo & culture
SAEKI P&C
Since 1977

대한민국 사진·영상장비 대표기업

본사_서울시 중구 수표로 22-12 세기빌딩 T.02.3668-3114(代) I F.02.742-3387
브랜드샵_T.02.3668-3109,3181 I F.02.2279-0887 광고·홍보_T.02.3668-3167

www.saeki.co.kr

www.fomex.co.kr



FOMEX®

Studio Flash System

고퀄리티 사진촬영을 위한 스마트한 선택!



선명하다. 정확하다. 변함없다.

사진조명 대표 브랜드 포멕스 Studio Flash System이 새로운 빛의 세계를 열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그대로 사진을 디자인합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듯 정확하고 선명하게!
여러분의 가장 스마트한 선택. Fomex 스트로보! 포멕스가 만들고 세계로 수출합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자세한 제품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FOM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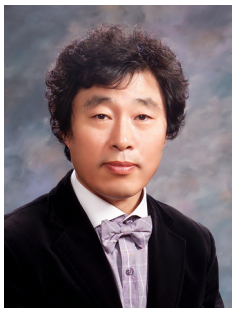
전시장 02-511-9904 | **고객지원센터** 02-545-0004 | www.fomex.co.kr
04787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18길 31 풍림테크원 7층

서울시우수기업 The Excellent Company of Seoul
글로벌 강소기업 Small Giant Company of Korea
INNO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제66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
캐논촬영대회
심사결과

· **일 시** 2026년 1월 7일(수)
· **장 소** 사진회관
· **심사위원장** 장광동
· **심사위원** 임병학, 이경우, 이정휘, 김갑수

입상(선)명	스튜디오명	성 명	제 목	소속(지회)
금상	예쁜스튜디오	정만식	비상	경남
은상	진포토	염동진	어휴	충북
	스튜디오 청	박남국	강인한 눈빛	경기
동상	선사진관	김선식	궁전속에휴무	서울
	한포토	한권일	미녀	서울
가작	이엘스튜디오	박용식	무제	경기
	예쁜사진관	정만식	예술혼	경남
	드림스튜디오	박남규	촬영대회	울산
	열린문화 이음	나영균	꽃을 품은 미소	서울
	무거동	김희덕	70주년	울산
	민영디지탈	남영우	포즈5	전북
입선	알라딘스튜디오	이흥식	포즈	울산
	드림스튜디오	박남규	물빛에 머문 우아	울산
	무거동사진관	김희덕	하트	울산
	한포트	한권일	도인	서울
	스튜디오 청	박남국	춤사위의 선	경기
	선 사진관	김선석	열정	서울
	예쁜스튜디오	정만식	시선	경남
	조광회 포토	조광회	포즈	서울
	H스튜디오	김혁상	포즈	대구
	스튜디오 청	박남국	미소가 아름다워	경기
	아이존스튜디오	최문성	숙녀2	경기
	알라딘스튜디오	이흥식	사랑해요	울산
	H스튜디오	김혁상	촬영중	대구
	예쁜스튜디오	정만식	포즈	경남
	알라딘스튜디오	이흥식	혼을 담아	울산
	민영디지탈	남영우	우아한 미소	전북
	포토코리아	이창혁	마냥 웃었어	대구
	스튜디오 청	박남국	아름다움	경기
	아이뱅크스튜디오	조석환	나 예뻐	충남



금상

경남지회

예쁜스튜디오 정만식 작가 **'비상'**





은상

충북지회

진포토 염동진 작가 **'어휴'**





은상

경기지회

스튜디오 청 박남국 작가 **'강인한 눈빛'**





동상

서울지회

선사진관 김선식 작가 **'궁전속에휴무'**





동상

서울지회

한포토 한권일 작가 **'미녀'**



calibrite

EIZO

- SPECIAL EVENT-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회원 특별 이벤트!

프로 사진가는 패스포트 포토2를 사용합니다.

Must Have Calibrite Passport Photo 2

20% OFF

역대 최대 보상 판매

색 바래고 낡은 **오래된 컬러차트!** 이제 **현금**처럼 쓰세요.
브랜드 무관, 상태 무관, 종류 무관!

calibrite

ColorChecker

패스포트 포토2

패스포트 듀오

컬러체커 클래식

컬러체커 클래식 미니



☎ 02-713-5340 보상판매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컬러체커 패스포트 포토2의 핵심 기술

본질의 차이 **특수 배합 도료**	**캘리브라이트 : 특수 배합 도료를 직접 도포하여 실제 사물과 동일한 분광 특성 구현** 출력으로 패치를 제작한 제품은 잉크 분사(인쇄) 방식으로 인해 광원에 따른 색 왜곡 발생
빛의 완벽한 통제 **반사 없는 정확한 컬러**	**캘리브라이트 : 극도의 무광 마감으로 빛 반사를 차단해 어떤 각도에서도 정확한 컬러 값 제공** 출력으로 패치를 제작한 제품은 종이 재질 특유의 광택과 난반사로 인해 컬러 데이터의 오차가 발생
밀도의 깊이 **빈틈없이 완벽한 단색**	**캘리브라이트 : 고밀도 단일 색상 층을 형성하여 노이즈 없는 완벽한 컬러 값 제공** 출력으로 패치를 제작한 제품은 미세한 잉크망점과 노즐의 잉크 혼합 현상으로 컬러 값 신뢰도 낮음
시간의 증명 **외부 요인에 강한 특수 도료**	**캘리브라이트 : 내광성이 뛰어난 특수 배합 도료로 자외선과 외부노출에 색상 유지력이 높음** 출력으로 패치를 제작한 제품은 잉크와 종이의 한계로 인해 자외선이나 공기 접촉에 취약

calibrite

BEST 베스트

캘리브라이트 컬러체커

패스포트 포토2

1. 산업표준 24색클래식 패치 타깃
2. 크리에이티브 인핸스먼트 타깃
3. 그레이 밸런스 타깃
4. 화이트 밸런스 타깃
5. 충격과 오염 방지하는 케이스
6. 전용 소프트웨어 무료 제공



CGKorea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571길 60-6 (세곡동)

TEL.02-713-5340 FAX.02-715-5340 www.eizo.co.kr * 전화 문의 바랍니다



드림라보/인디고/잉크젯/은염/대형출력
특수출력/샤인메탈/앨범/포토북/액자제작
서 비 스 전 문 기 업

포토천지

(구,천지이미징)

본　　사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29 번지 / TEL : 063-712-5500, 5555
영업본부장 유창봉 010-6382-9184 / 새만금지사장 남영우 010-4384-0505
대표사이트 www.cjdpi.kr / 온라인사이트 www.cjphoto.kr

광주지사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4번길 9 / TEL : 062-222-6700
영업이사 김형근 010-9222-7333



햇살이 머무는 미소 (Smile where Sunshine Dwells)

창가로 쏟아지는 투명한 빛의 입자 속에 아이의 가장 순수한 찰나를 수채화처럼 담아내다.
밀짚모자 아래로 번지는 해맑은 웃음과 파스텔톤 꽃들의 어우러짐은 생동감 넘치는 봄의 서사를 완성하였다.



작가소개 **박용호 작가**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서울지회장 역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서울지회 고문
現 파스텔스튜디오 대표



천년의 결, 시간을 잇다 (Threads of a Millennium)

화려한 금사(金絲)와 오방색의 깊은 채도를 통해 우리 전통 복식이 가진 장엄한 미학을 렌즈에 담다.
인물들의 흔들림 없는 시선과 삼각 구도의 안정적인 배치는 왕실의 권위와 고전적인 절제미를 입체적 표현하였다.

박용호 작가



시간의 결을 걷다

오랜 세월을 묵묵히 버텨온 한옥의 창살과 기둥 사이로 한복을 입은 여인의 발걸음이 스쳐 지나갑니다.
흑백에 가까운 정적인 공간의 무게감과 붉고 푸른 색채로 번지는 동적인 궤적이 대비되며,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찰나의 순간을 아련한 시간의 흐름으로 포착했습니다.



작가소개 **이정휘 작가**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수원시 자문
現(사)한국프로사진협회 작가제도위원회 이사
現수원 화성스튜디오 대표



설원 위의 동백꽃

차가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숲속, 마치 겨울을 뚫고 피어난 한 송이 동백꽃처럼 붉고 푸른 한복을 입은 여인이 힘차게 달려 나갑니다.
혹독한 추위와 대비되는 그녀의 강렬한 색채와 역동적인 움직임은 메마른 겨울 풍경에 생명력과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으며,
보는 이로 하여금 시련을 이겨내는 강인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정휘 작가



중년의 빛 — 가장 단단하고 따뜻한 시간

차콜 그레이 배경 앞에서 블랙 의상과 진주 목걸이를 갖춘 인물이 정면을 향해 조용하고 단아한 미소를 건넨다. 흔들림 없는 시선과 절제된 표정 속에 오랜 세월을 품위 있게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내공과 따뜻한 온기가 동시에 담겨 있다. 목선을 따라 흐르는 진주 목걸이의 은은한 광택이 인물의 품격을 한층 더하며, 화려함보다 절제를 선택한 구성이 중년 여성이 지닌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초상(肖像)을 완성한다.



작가소개 **최병희 작가**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홍보위원
現 청스튜디오 대표



박사(博士), 그 이름을 얻다

검은 박사 학위 가운과 각모(角帽)를 갖춘 인물이 두 손을 단정히 모은 채 카메라를 향해 수줍으면서도 당당한 미소를 건낸다.
긴 수학(修學)의 시간을 버텨낸 자만이 입을 수 있는 학위 가운의 무게가 젊은 어깨 위에 놓여 있고,
그 무게를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인물의 표정에서 학문에 대한 열정과 성취의 벅찬 감동이 동시에 전해진다.
박사 학위라는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은 이 순간이, 동시에 더 넓은 세상을 향한 또 다른 출발점이 됨을
인물의 맑고 또렷한 눈빛이 조용히 말하고 있다.

최병희 작가

제주지회

제주지회 제67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 후기



| **취재** 이창훈 제주특별자치도 지회장

제주특별자지도지회(지회장 이창훈)2026년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도 평창 모나용평 리조트에서 열린 제67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에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회원들과 함께 참가했다. 고창문, 전성환, 송시홍, 장희수, 전창범, 박우철, 조재용, 박진우, 이정민 회원과 나를 포함해 총 10명이 한 팀으로 움직였다.

제주에서 평창까지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다. 비행기를 타고 육지로 나와 다시 강원도 산간까지 이동하는 긴 여정이지만, 해마다 세미나를 챙기는 것은 우리 지회가 오랫동안 이어온 전통이다. 제주의 사진인들에게 이 자리는 전국의 동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최신 정보를 직접 받아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다. 그래서 먼 길이 전혀 아깝지 않다.

세미나 기간 동안 회원들과 함께 강의실을 옮겨 다니며 배우고 메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회장으로서 참 뿌듯했다. 인공지능(AI) 활용 기법, 마케팅 전략, 장비 운용 노하우 등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을 한 자리에서 접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프로사진세미나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강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식사 자리에서 다른 지회 회원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배움은 계속됐다.

발왕산 전망대에서 담은 추억

세미나 일정을 마친 뒤 회원들과 발왕산 관광케이블카 전망대를 올랐다. 해발 1,458미터 정상에서 내려다보이는 평창의 산야와 하늘을 가득 채운 구름바다는 정말 장관이었다. 제주에서도 아름다운 자연을 매일 가까이하지만, 대관령 고원의 웅장함은 또 다른 감동이었다. 전망대에서 회원들과 나란히 서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세미나의 성공과 협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다함께 화이팅을 외치는 그 순간이 이번 여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다.

제주지회는 앞으로도 중앙 협회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할 것이다. 이번에 함께한 회원들이 제주로 돌아가 배운 것을 하나씩 현장에 녹여내어 우리 지회를 한 걸음 더 성장시키는 씨앗이 되길 바란다. 세미나를 훌륭하게 준비해 주신 집행부와 전국 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린다.



부산지회

2026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부산지회 고문·자문·운영위원 연석회의

| **취재** 이광호 부산사무국장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부산지회(지회장 박재영)는 지난 7월 13일(월) 오후 5시, 해운대 예쁜사진실 스튜디오에서 2026년 고문·자문·운영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연석회의에 앞서 지회를 위해 늘 애써주는 고문·자문위원들을 위한 프로필 사진 촬영도 함께 진행됐다. 평소 협회와 부산지회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고문·자문님들에게 뜻깊은 사진을 남겨드리고자 마련된 자리로, 촬영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프로필 사진 촬영은 이광호 사무국장이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촬영에 임하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다.

촬영을 마친 후에는 장소를 옮겨 식사를 함께하며 부산지회의 주요 현안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진 커피와 음료 자리에서도 협회와 부산지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가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다.

오랜 기간 사진업계와 협회에서 활동해 온 고문·자문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부산지회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연석회의는 세대와 경험을 넘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부산지회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자리로 마무리됐다.



이광호사무국장 촬영 모습



식사 모습



티 타임



부산지회 연석회의 모습



모래위의 발자취

드론 부감 시점으로 포착한 하구(河口) 갯벌 지대로, 썰물이 빚어낸 모래톱의 곡선과 물길의 흔적이 화면 전체를 하나의 추상화(抽象畵)처럼 구성한다. 황금빛과 갈색이 교차하는 모래 위로 목교(木橋)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이어지고, 물살이 새긴 결과 바람이 남긴 무늬가 겹쳐져 자연이 만들어낸 정교한 예술 작품을 펼쳐 보인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부감 시점이 일상의 갯벌을 전혀 다른 차원의 풍경으로 변환시킨 작품이다.



작가소개 **권혁만 작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장 및 감사패 수상(2025년)
행정안전부 제9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울산광역시 대표(전)
울산광역시 제12기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
제10회 전국드론사진공모전 우수상 수상(2025년)

2026년 창원공원묘원 전국사진공모전 작품상 수상
現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자문
現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現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울산광역시지회 고문
現 모델스튜디오 대표

무섬마을을 품은 빛

경북 영주 무섬마을을 드론으로 부감 촬영한 작품으로,
내성천(乃城川)이 마을 전체를 S자로 휘감으며 만들어낸 육지 속 섬 지형이 한눈에 담긴다.
화면 상단을 가득 채운 황금빛 일출 노을이 운무(雲霧)에 싸인 첩첩 산줄기 위로 번지며 장엄한 색채의 향연을 펼치고,
마을의 불빛과 수면에 반사된 노을빛이 어우러져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수백 년 세월을 강이 품어온 전통 마을의 새벽 풍경이 한 장의 파노라마로 완성됐다.





황금빛 저녁, 갈대밭을 물들이다

산자락 너머로 막 내려앉는 태양이 강렬한 황금빛 광선을 뿜으며 광활한 갈대 습지 전체를 따뜻한 색조로 물들이는 장면을 광각 파노라마로 담아냈다. 화면 중앙의 목조 탐방 전망대가 역광 속에 실루엣으로 서 있어 습지의 광활한 스케일을 가늠하게 하는 기준점이 된다. 초록과 황금빛이 교차하는 갈대밭은 일몰의 빛을 받아 물결치듯 살아 움직이며 화면 전체에 강렬한 생명력을 부여한다.
화면 상단을 수놓은 권운(卷雲)의 결과 깊고 맑은 청색 하늘이 황금빛 하단과 선명한 대비를 이루며 화면에 극적인 깊이감을 더한다.
원경의 첩첩 산능선이 옅은 안개에 싸여 공간의 거리감을 확장시키며, 하구(河口) 생태계가 지닌 황혼의 절경을 파노라마 한 장에 완성했다.



작가소개 **이용일 작가**

前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순천시 지부장 역임
前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전라남도 지회장 역임
前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국제교류 이사 역임
前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사진문화원 이사
前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제39대 협회 감사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제0298호 초대작가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협회 자문

연지(蓮池)에 내려앉은 노을

도심 공원 연못을 가득 메운 연잎 군락 위로 강렬한 석양빛이 쏟아지며 하늘과 수면이 함께 타오르는 장관을 광각 파노라마로 포착한 작품이다. 화면 중앙 수면은 붉게 물든 하늘을 고스란히 반사하며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무는 시각적 거울 역할을 한다. 연못을 가로지르는 목교(木橋)와 그 너머로 홀로 선 나무의 실루엣이 노을빛 하늘을 배경으로 강한 인상을 남기며 화면의 무게중심을 잡아준다. 전경을 가득 채운 연잎의 짙은 초록은 하늘의 주황·보라·청색과 보색 대비를 이루며 화면 전체의 색채 균형을 완성한다. 도심 속 자연 습지가 하루의 마지막 빛과 만나는 이 찰나는, 일상의 공간이 얼마나 극적인 풍경을 품고 있는지를 조용히 일깨운다.





항아리의 원진(圓陣), 기억을 담다

야외 정원에 원형으로 배열된 수십 개의 전통 옹기 항아리가 정오의 역광을 받아
깊은 실루엣으로 표현됐다. 항아리들의 둥근 형태가 반복되며 만들어내는 기하학적 패턴이 화면에
강한 리듬감을 부여하고, 그 중심에 놓인 귤 한 알이 조용한 이야기를 품은 포인트가 된다.
제주의 전통 저장 문화와 자연광이 만나 일상의 사물을 예술적 구성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다.



작가소개 **이희춘 작가**

前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성남시지부장
前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38대 작가제도위원
前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39대 작가제도위원
前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제0264호
前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촬영지도위원
前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심사위원
現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40대 작가제도위원 (현)
現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경기지회 부지회장 (현)
現 미래포토 대표

불타는 수평선, 자홍빛 노을 바다

해 진 직후 수평선 위로 퍼지는 자홍빛과 주황빛이 화면 전체를 가득 메우며 장엄한 색채의 향연을 펼친다.
수평선 위에 떠 있는 먹구름들이 강렬한 노을빛을 받아 실루엣으로 서며 화면에 극적인 깊이를 더한다.
고요한 수면이 하늘의 색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늘과 바다의 경계를 지워버리는 몽환적인 순간을 포착했다.



GANA
PHOTO SYSTEM

사진/영상 장비의 모든 것

가나사진기구

스튜디오 구축부터 장비 설치, 사후 관리까지
촬영 환경 구축 토탈 솔루션



- 사진관 및 스튜디오 창업 제품 판매
- 사진조명 & 영상조명 설치 전문
- 전동 배경, 크로마키 설치 전문
- 사진 기자재 수리 전문







02. 3675. 6698

gana2000co@hanmail.net I www.gana2000.co.kr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9길 21(돈의동) 2층 가나종합사진기구상사

모두스쿨 × PARANSOFT

스마트 촬영
사진관리 솔루션

학교 졸업사진 & 일반 매장사진 완벽 지원



촬영부터 셀렉/컨펌, 추가수익까지 한 번에!

1. 졸업사진 촬영관리 시스템

스마트촬영 & 자동 분류
- QR/태블릿 촬영으로 학생 정보 자동 매칭
- 엑셀 명단 기반 생성으로 수작업 오타 완벽 방지

대용량 일괄 업로드
- 수천 장의 고화질 사진도 클릭 한 번에 업로드
- 학교·학생별로 자동 분류되어 데이터 정리 끝

집에서 하는 비대면 셀렉
- 학생이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사진 선택
- 스튜디오와 학교에서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 가능

학부모 원본 판매 ☆추가수익
- 결제 및 민원 응대는 모두스쿨이 전담 처리
- 판매 금액 자유 설정으로 확실한 추가 매출 달성

2. 매장사진 촬영관리 시스템

매장 방문 고객 간편 접수
- QR/태블릿 촬영으로 학생 정보 자동 매칭
- 엑셀 명단 기반 생성으로 수작업 오타 완벽 방지

스마트폰 실시간 사진 셀렉
- 고객 휴대폰 전송 링크를 통해 사진 확인 및 선택
- 매장 대기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셀렉 가능

모두스쿨 촬영관리 자동화 시스템 흐름도

1. **촬영준비**
   명렬표 등록 및 QR 생성
   학생별 고유 계정 부여
2. **스마트 촬영**
   태블릿/QR 연동 촬영
   데이터 자동 매칭
3. **데이터 업로드**
   1분 컷 오토네이밍 완료
   자동 정렬 및 업로드
4. **고객 직접 셀렉**
   모바일로 내 사진 확인
   장바구니 담듯 간편 셀렉
5. **최종 컨펌**
   검수 및 최종 승인
   데이터 취합 및 제작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완벽 준수 Web & NAS 보안 준수 | 데이터 암호화 및 파기 | 보안 증명서 출력제공

신규 신청 특별 혜택! 'QR 촬영 보드판' 1개 무상 증정

문의 : 파란소프트 051-624-5075

스튜디오 성공 파트너, 모두스쿨 사진 관리 및 셀렉 시스템 (www.moduschool.co.kr)

선배님의 사진,
AI로 되살리다

흑백 채색 복원과정 인공지능(AI) 활용 워크플로

| **사진작업** 김영우 서울지회 부지회장

박수동 작가의 1969년 작 인물 사진은 인위적인 연출을 넘어
피사체의 맑고 생동감 넘치는 순간을 자연스럽게 포착한 수작입니다.



표정의 생동감과 감정의 교감

정형화된 포즈나 경직된 표정을 벗어나, 활짝 웃는 인물의 자연스러운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살짝 드러난 치아와 눈가에 맺힌 미소는 작가와 피사체 사이의 깊은 유대감과 편안함을 드러내며, 보는 이에게 즉각적인 온기를 전달합니다.

부드러운 조명과 정교한 계조(Tone)

인물의 사선 방향에서 들어오는 부드러운 확산광을 활용하여 얼굴 윤곽의 입체감을 단정하게 살려냈습니다

- 윤기가 도는 단발머리의 풍부한 흑색 (Shadow) 디테일
- 이마와 뺨, 콧날에 맺힌 깨끗한 하이라이트
- 잔잔한 꽃무늬 의상과 은은한 그라데이션 배경 사이의 중간 계조 (Mid-tone)

이 세 요소가 거친 대비 없이 부드럽게 이어져 흑백 은염 사진 특유의 부드럽고 밀도 높은 질감을 구현합니다

동세를 살린 사선 구도

상체를 비스듬히 배치하고 고개를 살짝 기울인 사선 구도는 정면 사진의 답답함을 덜어내고 화면 전체에 경쾌한 리듬감을 부여합니다. 배경을 단순하게 정리해 시선을 인물의 표정과 시선에만 온전히 집중시키는 프레이밍도 안정적입니다.



① 원본

당대 1960년대 후반 살롱 사진에서 추구하던 정석적인 암실 기법과 인물에 대한 따뜻한 휴머니즘적 시선이 잘 융합된 작품입니다. 기술적인 완성도 뿐 아니라 한 시대 청년의 밝고 순수한 생명력을 담아낸 점에서 기록적·미학적 가치가 충분합니다.



② 제미나이(어깨선)

생성형 AI 제미나이(Gemini)로 채색을 시도한 첫 번째 결과물에서 또다시 오류가 발견됐다. 몸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쏠렸고 음영이 짙어졌으며, 얼굴은 크고 길게, 눈동자는 원본과 달리 정면을 바라보도록 생성되었다.



③ 2차 AI 적용 결과

프롬프트를 조정해 재생성한 결과물에서는 1차 생성과는 다르게 얼굴이나 포즈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얼굴은 둥글고 앞으로 쏠리는 현상이 계속되었다.



④ 3차 AI 적용 결과

세 번째 시도에서는 프롬프트를 조정해 재생성했다. 얻어걸린 느낌이지만 처음으로 포토샵 작업을 생략했다. 운 좋은 날.



보빙사 사절단 사진,
AI 복원으로 마주하다

140년 전 태평양을 건넌 조선의 얼굴들

| **사진작업** 김충식 사진병원

"2026년 7월 4일" 미국독립기념일(1776) 25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외교관계가 언제 수립되었는지 궁금한 나머지 원고를 준비하여 10월7일 지역축제인 충장축제에 출품 전시하고자 3개월여 시간을 할애하여 제작된 작품입니다.

1882년 조, 미 통상 수호조약이 수립되어 1883년 7월 답방 형식으로 개화사상과 근대문물에 관심이 높은 젊은 엘리트 관리들로 구성된 사진입니다. 조선 땅에 최초의 사진이 등장하는 시기는 1880년 전후 무렵으로 추정되는데 1883년 보빙사 사절단의 사진은 미국인 기자에 의해 촬영된 사진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절단 업무 수행 이후 이듬해인 1884년 갑신정변에 참여한 주요 인물인 홍영식, 서광범 2명의 인물이 포함되어 급변하는 구한말의 기록사진으로 사료가치가 높다 할 수 있습니다.

책자의 이미지로 낮은 해상도에 윤곽을 보완하는데, AI 활용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얼굴, 의상 주위 배경 등 의도치 않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복원은 작가의 창작과 관념이 다소 적용될 수 있지만 기록사진은 반듯이 고증을 거치고 디테일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 시국에 미국과의 외교관계가 얽힌 예민한 시기에 140여 년 전 미국과의 외교 역사를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치된 플레이스가 손님을 쫓아낸다

플레이스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리다

| 글 남유행 제41대 감사 당선자



문을 달아두고 간판만 걸어놓은 가게를 본 적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들여다보다가 결국 그냥 지나친다. 업데이트가 끊긴 플레이스가 정확히 그 꼴이다. 사진 몇 장, 잘못된 영업시간, 답글 하나 없는 리뷰들. 고객 입장에서는 이 사진관이 아직 운영 중인지조차 의심스럽다.

플레이스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리다. 한 번 만들어두면 끝이 아니다. 살아있는 가게처럼 계속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검색 노출도 유지되고, 들어온 고객도 발걸음을 멈춘다.

플레이스 지수는 관리하는 만큼 오른다

네이버는 플레이스마다 신뢰도 점수를 계산한다. 정보 완성도, 사진 수, 고객 리뷰, 저장 수, 업데이트 빈도. 이것들이 쌓여서 '플레이스 지수'가 만들어진다. 지수가 높을수록 같은 키워드 검색에서 경쟁 사진관보다 위에 노출된다. 같은 지역,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지수 차이가 노출 순서를 결정한다.

지수를 올리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월 1~2회 새로운 사진이나 게시물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활성화된 업체'로 인식된다. 계절 이벤트 안내, 신규 서비스 소개, 촬영 후기. 짧아도 좋으니 꾸준히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리뷰 답글은 홍보문이다

고객이 리뷰를 남겼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다음에 그 고객이 다시 올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그 리뷰를 보는 잠재 고객도 이 사진관이 고객 소통에 관심이 없다고 느낀다. 반대로 성의 있는 답글이 달려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 답글을 읽는 사람은 그 고객 혼자가 아니다.

리뷰 답글은 단순한 감사 표현이 아니다. 잠재 고객 모두가 읽는 홍보문이다. '소중한 가족의 순간을 저희 스튜디오에서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사진 전문으로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답글 하나에는 감사의 표현과 함께 우리 스튜디오의 정체성이 담긴다.

오늘 당장 플레이스를 열어보자

지금 네이버 플레이스를 열어보자. 마지막으로 사진을 올린 게 언제인가. 답글 없는 리뷰가 몇 개인가. 영업시간이 현재와 맞는가. 이 세 가지만 확인하고 업데이트해도 오늘의 할 일은 끝이다.

작은 관리가 쌓여 큰 차이를 만든다. 방치된 플레이스가 손님을 쫓아낸다면, 관리된 플레이스는 손님을 끌어당긴다. 내가 가만히 있는 동안 경쟁자는 움직이고 있다.

사진관의 새로운 도구 AI

경쟁력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



| 글 유현수 교육자격위원

사진관을 운영하다 보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한 번쯤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이 기술을 지금 꼭 배워야 할까?", "잠깐 지나가는 유행은 아닐까?"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가던 격변기에도 그랬고, 고가의 전문 DSLR과 미러리스 시스템이 잇따라 도입될 때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낯선 장비의 조작법을 익히고 워크플로를 바꾸는 것이 여간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그 새로운 기술이 업계 전체의 표준이자 상식이 되었다.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 인공지능(AI) 역시 일부 IT 전문가나 젊은 세대만의 특별한 전유물이 아니다. 이미 우리의 고객들부터가 일상에서 AI를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검색하고, SNS용 문구를 작성하며, 일상 사진의 배경이나 인물을 손쉽게 지우고 보정하는 일이 보편화되었다.

결국 AI는 단순한 유행성 신기술이 아니라 사진업계가 마주한 '새로운 기준'이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AI 시대에 사진관의 진정한 경쟁력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 이제는 단순히 'AI 툴을 쓰는 사진관'과 '쓰지 않는 사진관'이라는 이분법적 분류만으로는 시장의 격차를 설명하기 어렵다. 핵심은 AI라는 도구를 '어느 정도의 깊이와 완성도로 다룰 수 있느냐'이다. AI는 사진사의 설 자리를 빼앗는 대체재가 아니라, 사진사의 작업 영역을 비약적으로 확장해 주는 든든한 확장 도구다.



많은 사진관 대표들이 마음 한구석에 "AI가 결국 사진사의 고유 영역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 아닐까?"라는 불안감을 품고 있다. 실제로 현재 사진관 실무 현장에서 AI가 해내는 작업들은 놀라울 정도다. 훼손된 옛날 흑백사진의 복원과 정교한 컬러화, 복잡한 인물 리터칭, 스튜디오 배경 합성 및 교체, 계절이나 콘셉트에 맞춘 의상 변경, 불필요한 배경 요소 제거는 물론, 프로필 합성이나 마케팅 홍보 이미지 제작까지 그 활용 범위는 날로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사진사의 존재 가치가 사라진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사진사가 'AI에게 무엇을, 어떻게 지시할 것인가'를 기획하고 결정하는 통제력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 예를 들어 빛바래고 훼손된 가족사진을 복원하는 작업을 떠올려보자. AI에게 단순히 "이 오래된 사진을 깨끗하게 복원해줘"라고만 요청하면, AI는 수학적 알고리즘에 따라 사진을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인물의 고유한 생김새를 임의로 왜곡하거나, 가족의 추억이 담긴 배경을 전혀 다른 형태로 덮어버리고, 당대의 복식과 맞지 않는 옷을 그려 넣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사진관에서 AI를 도입한다는 것은 무조건 작업을 일임하는 방관이 아니다. '어디까지가 자연스러운 개선이고, 어디서부터는 원형을 지키기 위해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가'를 명확히 구분하는 통제권이 사진관에게 있어야 한다. 즉, AI는 사진관의 '손 빠른 직원'처럼 다루어야 마땅하다. 사진관 현장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미적·상업적 판단이 쉴 새 없이 이루어진다. AI가 복잡한 노동을 빠르게 처리해줄 수는 있어도, 고객과 최종 결과물에 책임을 지는 것은 오직 결정권을 쥔 원장과 사진사의 몫이다. 수많은 촬영 컷 중 고객의 매력을 가장 잘 드러내는 베스트 컷을 골라 추천하는 일, 과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피부 결의 선을 잡는 일, 오래된 옛 사진의 가치와 추억을 훼손하지 않는 복원 수위를 조절하는 일, 그리고 때로는 고객의 무리한 수정 요구를 정중히 조율하고 불가능한 작업을 선별해내는 일은 오직 인간의 감각과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물론 복잡한 의사결정까지 AI가 도맡을 수는 없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작업들을 AI에게 위임하면 사진사의 업무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향상된다. 예약 응대나 상담 안내문 작성, SNS 마케팅 홍보 카피, 체계적인 스튜디오 작업 매뉴얼 제작, 대량의 촬영 데이터 분류, 그리고 기초 보정(잡티 제거 및 누끼 작업) 등은 AI의 서포트를 받아 작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이를 통해 절약한 시간과 에너지는 고객과의 소통, 조명 연구, 새로운 콘셉트 개발 등 사진관의 본질적 가치를 높이는 데 온전히 재투자할 수 있다. AI 시대의 사진관은 AI와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경쟁자가 아니라, AI를 나만의 숙련된 조수로 삼아 작업 효율을 극대화하는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최신 AI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해서 사진관 고유의 색깔과 개성이 저절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역설적이게도 AI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프롬프트와 알고리즘 기반의 유사한 결과물을 쏟아낸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구현하고자 하는 사진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진관만이 차별화된 고품질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사진관마다 사진을 대하는 철학과 톤앤매너는 제각기 다르다. 피부의 질감을 그대로 살리는 맑고 자연스러운 톤을 추구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깊이 있는 라이팅과 무게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클래식한 인물 사진관도 있다. AI는 스스로 이러한 철학이나 감성을 만들어주지 못한다. 사진사가 오랜 경험을 통해 확립한 미적 기준과 스튜디오의 방향성을 AI에게 정확히 입력하고, 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뽑아내도록 디렉팅해야 한다.

결국 AI의 기술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를 판별해내는 사진사의 '눈'과 '경험치'가 더욱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좋은 사진이 무엇인지 볼 줄 아는 높은 안목이 있어야만, AI가 그럴듯하게 내놓은 결과물 속의 어색한 오류와 인위적인 왜곡을 날카롭게 걸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완성된 이미지가 사진관의 브랜드 결에 부합하는지, 원본 인물의 인상과 표정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지, 고객이 진정으로 만족할 만한 감성적 디테일을 충족했는지 검증하는 것은 앞으로도 결코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다.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온다고 해서 사진관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카메라 앞에서 고객의 긴장을 풀어주고, 찰나의 빛과 표정을 포착하며, 정성껏 빚어낸 사진 한 장으로 고객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전하는 '기본'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달라진 것은 작업대 위에 AI라는 강력한 도구가 하나 더 쥐어졌다는 사실뿐이다. 훌륭한 조명 테크닉과 정교한 카메라 세팅, 섬세한 포토샵 리터칭 실력으로 앞서나갔던 것처럼, 이제는 AI라는 도구를 자신의 작업 철학에 맞게 능숙하게 지휘하는 사진사가 새로운 시대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변화의 핵심은 기술에 이끌려 사진관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다. 사진사가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온전한 주인이 되어, AI를 가장 유용한 도구로 부릴 때 비로소 사진관의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

Photoshop(소프트 글로우): 빛의 낭만



눈동자 빛으로 그리는 낭만:
포토샵 '매지컬 소프트 글로우' 테크닉
단순한 보정을 넘어, 사진에 서사적인 깊이를 더하는 빛의 마술

사진은 빛의 예술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렌즈가 담아내지 못한
'공기감'과 '분위기'를 후보정으로 만들어내야 할 때가 있죠.
오늘은 평범한 인물 사진을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부드럽고 몽환적인 레트로 느낌으로
탈바꿈시키는 매지컬 소프트 글로우 기법을 전해드립니다. | 글 조형준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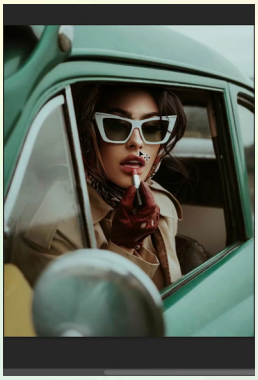
01 [준비] 빛을 퍼뜨리는 기초 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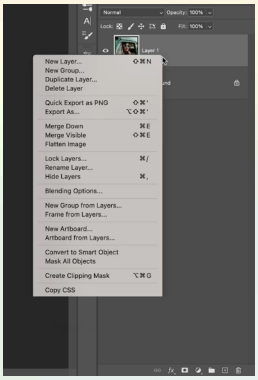
❶ 스마트 오브젝트와 가우시안 블러로 빛의 확산 만들기

· 주요 단계: 레이어 복사: 원본 보호를 위해 'Ctrl + J'로 레이어를 복사합니다.

❷ 스마트 오브젝트 변환

· 복사된 레이어에서 우클릭 후 [Convert to Smart Object]를
선택해 필터 값을 언제든 수정할 수 있게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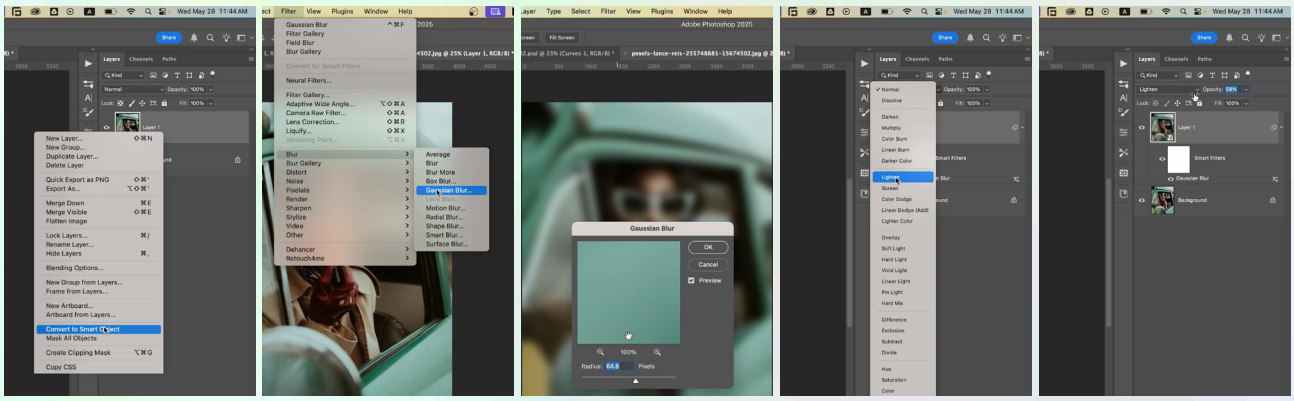


❸ 가우시안 블러**

· [Filter] → [Blur] → [Gaussian Blur]를 적용합니다.
영상에서는 65 정도의 높은 값을 추천합니다.

❹ 블렌딩 모드

· 레이어 블렌딩 모드를 [Lighten]으로 변경하고,
사진에 맞춰 Opacity(불투명도)를 자연스럽게 조절합니다.





조형준 포토샵 카페
HP:010-5359-4247
https://cafe.naver.com/retouch3



조형준 강사 프로필

[수상 경력]
- 2006년 국내최초 사진 회화리터칭 전문가 과정
- 2025년 국내최초 사진 입체 복원 전문가 과정
- PPA 미국사진협회 7년 연속 수상 (포토그래픽 분야)
- 독일 Digital Retouch Photographic 분야 수상
- 캐나다 Digital Art Competition 국제공모전 대상
- 유럽 International Photo ART 4RD Prize 수상
- 서울경제고려대 블록체인 연구소 주관 NFT 대상
- 서울옥션·업비트 NFT 사진분야 1위 수상
- 헐리우드 Weta Digital 컨셉아트 전문가부문 수상

[강의 경력]
- 뉴욕대 사진학과 사진 아트웍 강의
- 중앙대 예술대학 사진학과 아트웍 강의
- 건국대 포토그래피 사진 아트웍 강의
- 한성대 멀티미디어학과 아트웍 강의
- 가천대 광고영상학과 사진 아트웍 강의

02 [심화] 하이라이트만 골라내는 '컬러 레인지'의 마법

❶ 가장 밝은 영역에만 집중되는 2차 광원 효과 넣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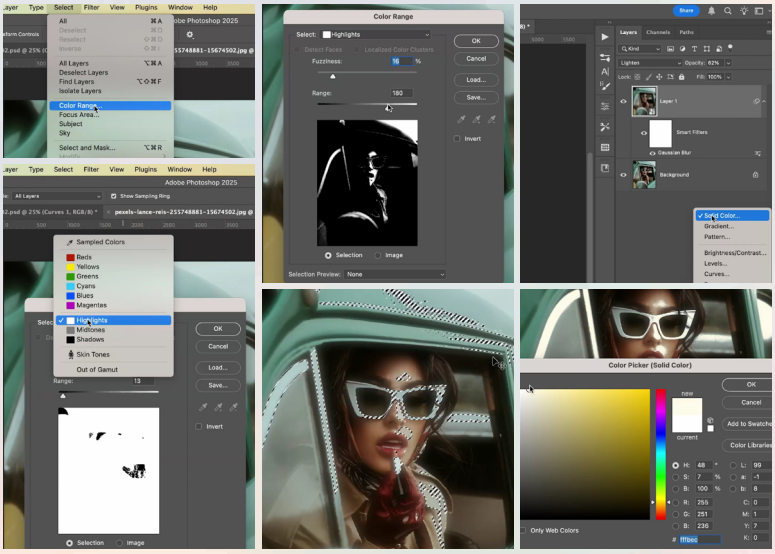
· 주요 단계:
영역 선택: [Select] → [Color Range]를 실행하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Highlights]를 선택합니다.

❷ 범위 최적화

· Fuzziness와 Range 슬라이더를 조절하여 빛이 번지길 원하는 하이라이트 영역만 정확하게 추출합니다.

❸ 색상 채우기

· 선택 영역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Solid Color] 조정 레이어를 추가하고, 아주 연한 크림색이나 따뜻한 화이트 계열을 선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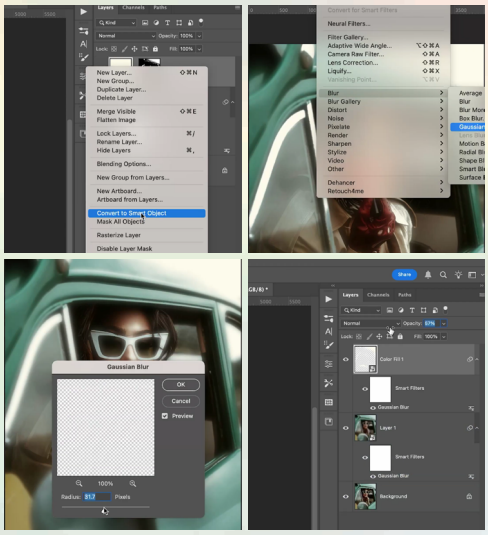
03 [디테일] 겹겹이 쌓아 올리는 빛의 레이어

❶ 추가 블러와 마스크 조절로 완성하는 극강의 부드러움

· 주요 단계: 추가 글로우: 앞서 만든 Solid Color 레이어를 다시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하고, 가우시안 블러를 한 번 더 적용하여 하이라이트가 은은하게 퍼지도록 만듭니다.

❷ 농도 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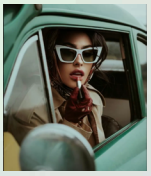
· 빛이 너무 과해 보인다면 Opacity를 낮춰 배경과 인물의 조화를 맞춥니다.



04 [마무리] 레트로의 정점, 따스한 색감 입히기

❶ 곡선(Curves) 조절로 완성하는 빈티지한 노란빛의 미학

· 주요 단계: 커브 추가: [Curves] 조정 레이어를 생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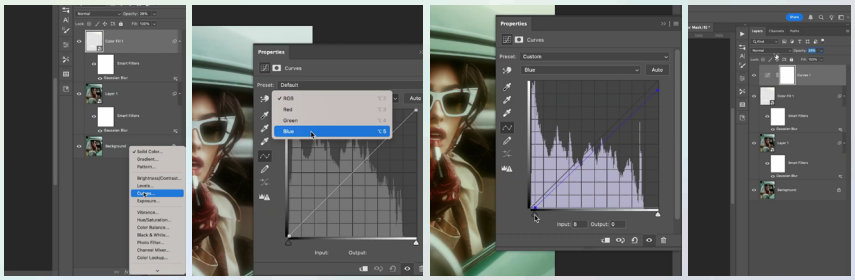
❷ 블루 채널 조정

· 드롭다운 메뉴에서 [Blue] 채널을 선택한 뒤, 그래프의 우측 상단을 살짝 아래로 당겨줍니다. 이렇게 하면 하이라이트 영역에 따뜻한 노란 기운이 감돌며 레트로 감성이 완성됩니다.



❸ 최종 결과

· 날카롭던 디지털 사진이 부드러운 아날로그 감성의 예술 작품으로 변한 것을 확인하세요.



마무리

글로우 효과는 자칫하면
사진의 선명도를 해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모든 단계에서 '스마트 오브젝트'를
사용하여 블러의 강도를 미세하게 조절해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하이라이트에만
따뜻한 색을 입히는 커브 작업이
이 보정의 신의 한 수입니다.



고객의 불편을 해결해 주어라

| 글 최병희 홍보위원장

얼마 전 후배 사진 작가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요즘 웨딩 스튜디오가 어떻게 돌아가냐고 후배 작가에게 물었다. 내가 현장에서 직접 뛰던 시절과 많이 달라졌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촬영을 끝내면 셀렉팅도 없이 원본 그대로 넘긴다고 한다. 고객한테는 인터넷 계정을 알려주고 알아서 퍼가라고 한다. 심지어 어떤 곳은 셀렉팅 업체가 따로 있어서 그 업체가 사진을 골라주고 추가 주문을 받아서 매출을 나눠 갖는다고 했다.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수정 컨펌, 이 모든 것을 그 업체가 대신한다. 처음엔 황당했다.

그런데 다시 생각 해보니 이해가 됐다. 인건비를 줄인 것이다. 셀렉팅 직원, 상담 직원, 편집 직원을 따로 고용하는 것보다 외주 업체에 맡기는 게 비용이 적게 든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영 논리로는 말이 된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무엇이 빠졌는지 생각해봤다. 고객이다.

고객은 지금 엄청난 불편을 안고 있다

핸드폰에 쌓인 수만 장의 사진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고객이 얼마나 될까? 결혼 전후 사진, 아이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사진, 가족 여행 사진.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도 헷갈리고, 어떤 사진을 남겨야 할지도 모른다. 시간을 내서 정리하려고 마음먹어도 막상 앉으면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 결국 그냥 클라우드에 올려두고 잊는다. 그게 현실이다.

웨딩 사진도 마찬가지다. 현상소에서 전체 파일을 받았다. 수천 장이다. 그중 어떤 사진이 잘 나왔는지 고르는 것 자체가 일이다. 부부가 함께 앉아 수천 장을 넘기면서 고르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는가. 대부분은 이것을 못 한다. 그래서 그냥 다 받아두고 보지 않는다. 인쇄도 못 하고, 앨범도 못 만들고, 그냥 파일로만 갖고 있다. 셀렉팅 업체가 따로 생겼다는 건 그 수요가 존재한다는 증거다. 누군가 고객의 사진을 대신 골라주고 정리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시장이다.

일단 그냥 다 주세요

"파일 어떻게 정리해요?" 고객이 이 말을 꺼낼 때가 바로 기회다. "일단 그냥 다 주세요. 제가 예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한마디가 관계의 시작이 된다. 정리 못 해서 포기하고 있던 수만 장의 사진이 우리 손으로 들어오는 순간이다. 고객이 직접 폴더를 만들고 날짜별로 분류할 필요 없다. 어떤 사진을 넣어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다.

그냥 핸드폰에 있는 것 그대로, USB에 담아서 주면 된다. 나머지는 우리가 한다. 연도별로 정리하고, 이야기가 흐르는 순서로 편집하고, 책으로 묶는다. 이것이 고객의 불편을 해결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서비스의 가치다. 고객은 이것을 정리 서비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기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아름답게 남겨주는 일로 받아들인다. 그것의 가치는 정리 비용이 아니다.

웨딩 업계가 셀렉팅 업체와 추가 매출을 나누는 구조를 만들었다면, 사진관은 그 전체를 직접 할 수 있다. 손님이 찍어온 사진을 받아서, 직접 정리하고, 직접 책으로 만들어서, 직접 드리는 것이다. 중간 단계 없이, 관계를 직접 만드는 것이다. 고객의 불편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결국 오래 살아남는다. 그리고 그 불편이 클수록, 해결해줬을 때의 감동도 크다.

PHONE to BOOK



고객의 핸드폰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사진관이 찍어준 사진은 예쁩니다
고객이 매일 찍어온 사진은 진짜입니다
두 가지가 만나면 완전한 이야기가 됩니다
예쁜 것과 진짜를 한 권의 책에 담아드리는 것
이제 사진관과 폰투북이 함께합니다

[제품특징]

- 200페이지~300페이지 구성
- 다양한 사이즈 (10X10부터 14X11까지)
- 160g의 프리미엄 용지 사용
- 실제본 기반 핸드메이드 제작으로 튼튼한 내구성
- 다양한 커버 및 이니셜 각인

폰투북 | 010-8711-5318

성공하는 사진관을 만드는 생각

| 글 한장훈 작가



도 서 명	대박 사진관의 비밀 노트
저 자	한장훈
출 판 사	도서출판 책과나무
판형·페이지	신국판 변형 / 396쪽

생각이 사진관을 만든다

사진관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같은 질문을 던진다. 왜 어떤 사진관은 손님이 끊이지 않고, 어떤 사진관은 문을 닫을까? 사진 실력의 차이일까, 상권의 차이일까, 아니면 운(運)의 차이일까? 필자는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다. 대박 사진관과 그렇지 못한 사진관을 가르는 것은 사진의 기술이 아니라 생각의 차이라는 것이다. 같은 손님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고도 어떤 사진관은 경기 탓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진관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같은 위기가 닥쳐도 어떤 사진관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어떤 사진관은 그것을 발판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그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이었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힘이었다. 『스튜디오 경영 매뉴얼』 1탄과 2탄을 통해 필자는 사진관이 처한 현실과 생존을 위한 변화를 이야기하였다. 이번 세 번째 책 『대박 사진관의 비밀 노트』는 그 연장선에 있다. 다만 이번 책은 매뉴얼이 아니라 '생각'에서 출발한다. 아무리 좋은 매뉴얼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사진관을 바꾸는 생각들

시대가 바뀌면 사진관도 리부트(Reboot)되어야 한다. 플랫폼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보의 주도권을 잃고, 정보의 주도권을 잃으면 경제의 주도권도 잃는다. 통찰력은 같은 현상을 보고도 다른 결론을 이끌어 내는 힘이며,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사진관만이 살아남는다. 반면 생각만 많고 행동하지 않는 사진관은 핑계 속에서 기회를 흘려보낸다. 단골은 필요할 때가 아니라 여유가 있을 때 만들어지는 자산이며, 좋은 동료와 멘토는 사진관의 성장을 함께 이끄는 자산이다.

변화를 읽지 못하면 도태된다

사람의 뇌는 본능적으로 변화를 거부한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려면 뇌가 전체 혈액의 20%를 소모해야 한다. 그만큼 변화는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다. 익숙한 방식대로 사는 편이 훨씬 편하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익숙한 일은 RPM 1000으로도 움직이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RPM 5000을 올려도 쉽게 속도가 붙지 않는다. 소리만 웅웅거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다. 지금 시대의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그것을 증명했다. 강제로 삶이 바뀌었고, 사람들은 편리함에 익숙해졌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러 가던 시대는 돌아오지 않는다. 편리함을 경험한 사람은 불편함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사진관도 예외가 아니다. 온라인 예약, 모바일 결제, SNS 후기 문화가 일상이 된 지금, 이를 외면하는 사진관은 이미 경쟁에서 한 발 뒤처진 것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리부트(Reboot)'라는 개념이 있다. 주인공은 그대로지만 줄거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지금의 사진관이 바로 그 리부트의 기로에 서 있다. 주인공인 사진관은 그대로지만 무대와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아날로그 경험의 몰락

농경사회에서 고령자의 경험치는 절대적인 자산이었다. 할아버지가 하던 일을 아버지가 하고, 아버지가 하던 일을 아들이 했다. 마을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그 마을의 빅데이터 센터가 사라지는 것이다. 씨 뿌리는 시기, 날씨를 읽는 법, 물길을 트는 방법 모두 어르신의 머릿속에 있었다. 그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었고 책으로 배울 수도 없었다. 그런데 산업화와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나이 든 사람들의 경험치가 필요 없어지는 세상이 됐다. 아날로그 시절 사진관에서 경험 많은 선배에게 기술을 배우려고 박봉에도 버텼다. 많이 찍어 본 사람이 잘 찍는

시절이었고, 필름과 현상 비용이 비싸서 경험치가 곧 경쟁력이었다. 필름 한 롤에 36컷, 한 번 찍으면 되돌릴 수 없었다. 조리개와 셔터 속도를 몸으로 익힌 선배만이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었다. 그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신입은 몇 년을 허드렛일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디지털을 넘어서 AI 시대가 되면서 달라졌다. 많이 촬영할 수 있고, 결과를 바로 볼 수 있으며, 누구나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유튜브 영상 하나로 조명 세팅을 배우고 AI 보정 프로그램이 후보정을 대신한다. 과거의 특별한 기술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 지금 사진관에 필요한 것은 과거의 기술이 아니라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것을 읽는 능력이다.

정보의 주도권이 경제 활동의 주도권이다

1990년까지는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 있었다. 사회생활을 통해 정보량이 많은 경제 활동의 주체였기 때문이다. 그러다 2000년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아버지의 권위가 흔들렸고, 2010년대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스마트폰 사용법을 손주에게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조언을 해 주던 위치에서 조언을 받아야 하는 위치로 바뀐 것이다. 사진관도 마찬가지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없이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은 점점 줄어든다. 새로운 기술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네이버 플레이스 관리를 못 하면 검색에서 밀리고, 인스타그램을 다루지 못하면 젊은 고객과의 접점이 사라진다. 포털사이트의 예약을 받지 못하면 전화를 기다려야 한다. 정보의 주도권을 가진 쪽이 경제의 주도권을 가진다. 플랫폼을 이해하고 다루는 사진관과 그렇지 못한 사진관의 격차는 앞으로 더 빠르게 벌어질 것이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다. 소비자도 이미 정보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사진관 문을 열고 들어와야 가격을 알 수 있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검색으로 주변 사진관의 가격과 후기, 포트폴리오를 모두 비교할 수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라진 시대에 사진관이 살아남으려면 비교당해도 선택받는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경쟁의 범위는 계속 넓어진다

1990년대는 동네에서 1등만 하면 충분했다. 소비자에게 멀리 가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었고, 아는 동네 사진관에 맡기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가 되면서 경쟁 범위가 구 단위, 시 단위로 넓어졌다. 온라인이 보급되자 권역별 경쟁이 됐다. 2010년대 KTX 시대가 되면서 전국이 2시간 생활권이 됐다. 맛집을 가고, 사진 하나를 찍으러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오는 시대가 된 것이다. 유명 스튜디오의 스타일이 SNS로 퍼지면서 소비자의 눈높이도 전국 단위로 통일되고 있다. 앞으로의 시대는 대한민국에서 1등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경쟁해야 한다. 경쟁의 범위가 계속 넓어지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떠도는 정보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사람을 만나고 모임에 나가서 정보를 얻고 새로운 기법을 받아들여야 한다. 사업은 정보력에서 결판이 난다. 필자가 20년간 전국의 사진관을 컨설팅하면서 목격한 것은 하나다. 잘되는 사진관은 항상 바깥을 보고 있었다. 협회 세미나에 나오고, 타 지역 스튜디오를 방문하고, 다른 업종의 성공 사례에서 힌트를 얻었다. 안을 보는 사진관과 밖을 보는 사진관의 차이는 3년이 지나면 확연히 드러났다.

변화를 선택한 자와 거부한 자의 결과

일본 반도체는 25년 내구성의 고품질 반도체를 만들었다. 한국은 3년짜리를 만들었다. 그런데 개인용 컴퓨터 보급으로 시장이 원하는 것은 저렴하고 적절한 품질이었다. 일본은 기술을 포기하지 못했다. 자존심 때문에 싸구려는 팔 수 없었던 일본은 결국 경쟁에서 도태됐다. 한국은 시장이 원하는 것을 만들었고 승리했다. 사진관도 마찬가지다. 기존 방식의 완성도에 집착하다가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지 못한 사진관이 사라진다. 90년대 10집 중 8집이 잘됐던 것이 2000년대 5집, 2010년대 2집, 지금은 1집 정도만 잘된다.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가 아니다. 변화를 받아들인 사진관과 거부한 사진관의 결과가 나뉜 것이다. 필자가 만나 본 대박 사진관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잘되는 시절에 안주하지 않았다. 오히려 잘될 때 더 공격적으로 변화를 시도했다. 여유가 있을 때 새로운 장비를 들이고, 직원을 교육하고, SNS 채널을 구축했다. 반면 어려워진 다음에 변화를 시도하면 이미 체력이 소진돼 있어 변화를 감당하기 어렵다. 변화는 여유가 있을 때 해야 한다.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현명해지지 않는다. 세상을 보는 통찰력은 꾸준한 공부와 경제 활동의 주체가 누구인지 현실을 직시할 때 생긴다. 변화를 읽고 먼저 움직이는 사진관만이 다음 세대에도 문을 열 수 있다.





가족사진에 대한 연구

| 사진가 김미애

사진가 김미애 씨는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에서 사진디자인을 전공했으며,
졸업 논문에서 가족사진에 대한 연구」를 연구 발표했다.
가족사진에 관한 논문으로는 김미애 씨의 논문이 국내에서는 처음 연구 발표되었으므로,
우리 협회와 밀접한 부분이 많아 앞으로 몇 회에 걸쳐 회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김미애 씨는 현재 서교동 작업실에서 각종 홍보책자의 사진을 작업하고 있다.
〈편집자 주〉

I. 서론

1. 연구 목적

한국의 사진역사는 개화기의 사진도입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로 창작사진 활동을 중심으로 연구 되어 왔다. 사진이 대중화 되기 전인 일제시대의 사진관 영업 활동은 예술사진 활동과 함께 어느 정도 언급되어 있으나, 그것은 그 당시의 창작 사진가들이 초상사진관 업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해방 이후에 일반 대중 들의 실용적인 요구에 의해 제작된 초상사진, 가족사진, 기념사진 등 사진관 사진작업들에 관한 연구 활동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진은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한다. 한국 사진사에서 사진관 가족사진은 그 시대의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 속에서 한국 가족의 변화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영업사진관에서 제작된 가족사진을 사회적·조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가족의 변화가 가족사진의 구도와 스타일(Style)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 대량 소비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가족사 진을 조형심리학적·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88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베이비 포토, 웨딩 포토와 함께 가족사진의 수요도 크게 늘어났는데,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제작된 우리나라 영업사진관의 가족 사진을 조형심리학적·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본 논문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논문의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을 밝혔고, 2장에서는 30년 이상 경력의 영업사진관 운영자 5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영업 사진관의 영업 환경과 가족사진의 변화를 알아 보았 으며, 수집한 가족사진들을 중심으로 구도와 스타일 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과거 흑백 가족사진은 한국문화전집에 소개된 작가들의 일제시대 가족사진과 기타 인쇄 매체에 나타난 사진, 그리고 개인 소장 사진을 수집, 참고하였다. 해 방 후의 가족사진은 주변에 있는 사진들을 개인적으 로 수집하였고 현대의 가족사진으로는 「사단」지에 게재된 100여 점의 가족사진을 참고로 하였다.

3장에서는 대한프로사진가협회에서 발간하는「사단지의 표지 사진을 중심으로 가족사진 수요의 흐름을 조사했다. 게재된 가족사진 100여 점을 참고하여 현대 가족사진의 구도와 스타일의 특징을 찾아내고, 가족사진의 대표적 구도와 스타일을 조형심리학적, 사회학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4장은 결론으로 '90년대 우리 사회의 가족문화와 가족관계의 특징이 가족사진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되 었는가를 정리하였고, 바람직한 가족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영업사진관 사진사들의 역할에 관한 글로 마무리하였다.

Ⅱ. 한국 사진관 가족사진의 변천

1. 영업사진관의 변화

우리나라에서 사진업의 시작은 1884년 서화가 해강 김규진(1868~1933)이 관비로 일본에 건 너가 1년간 사진기술을 습득, 1895년 귀국하여 창경궁 내에 촬영실을 개설하고 궁중사진과 초상사진을 담당한 데서 부터였다.

그는 현재의 서울 소공동에 천연당(天然堂)사진관을 개설하여 한국 영업사진의 시초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사단의 개척자로서 한국 사진계 형성 과정에 역사적 기점이 되었고, 그후 1915년 오경삼, 김시련 이 공동으로 서울 인사동에서 옥영사진관을 개업하였다. 1921년 미국에서 귀국한 최창근이 YMCA회관에 단기사진과 강의를 열어 최초로 사진교육이 행해졌고 그의 사진교육으로 인하여 이전의 저혼자만 알고 남에게는 가르쳐주지 않았던 사진의 비술시대에서 개방 시대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 연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에도 프랑스, 영국, 미국과 마찬가지로 초상사진이 모체가 되고 전국 각지에 사진이 보급 발전되어 새로운 직업으로 성업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영업 초상사진의 초창기는 고가의 대가를 지불해야 사진촬영이 가능하였으므로, 일반 서민계급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었고 부유층, 상류층에서 기념으로 촬영하거나 기생들이 자기의 미모를 보여주기 위해 촬영하였다.[1)]

일제시대의 영업사진관은 주로 일본인들에 의해 운영되었으나 해방이 되면서 일본인 사진관에서 일을 배웠던 사람들, 또한 일본 등지에서 사진을 공부했던 사람들에 의해 영업사진관이 운영되었다.

1950~60년대에는 소규모 사진관들이 많이 생겨나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들의 사진 욕구를 채워 주었고, 이러한 사진관의 역할은 가정용 카메라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는 '70년대까지 이어졌다. 당시 사진관에서는 모든 사진을 연필로 필름 수정하였고 이러한 수정기술은 영업사진관 운영자에게 필수적이었다.[2)]

1970년대 경제성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보급되기 시작한 가정용 카메라는 사진이 사진관의 사진사 손에서 벗어나 일반인들 누구나 찍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사진관 초상사진이 대부분이었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자동 카메라를 이용한 스냅사진이 사진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돌, 결혼, 기념일뿐 아니라 친구, 가족들과 기념사진을 직업 사진가들에게 의뢰해서 기록했으나 이제는 가정용 자동카메라가 이러한 역할을 대체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시대 변화에 따라 영업 사진관의 기능도 변화했다. 소형 카메라의 보급으로 가정용 카메라의 스냅사진과 사진관의 전문사진이 분리됨에 따라 영업사진관 사진의 기록성은 약화, 혹은 상실되고 연출에 의한 미적기능이 강화되었다. 문화생활이 다양하지 못했던 '80년대 이전까지는 친구들의 모임이나 곗날, 명절날 가까운 사람들끼리, 친척끼리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는 것이 즐거운 경험이었다.[3)]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문화관련 용품이나 활동이 다양화, 대중화되기 시작한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문화적 공간으로 서의 기능은 약화되고 자동카메라와 QS점의 보급으로 그 이전의 사진관이 맡아왔던 일반인들의 사사로운 모임이나 기념일 등을 기록해왔던 그 역할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내어준 사진관은 필연적으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가장 큰 특징이 사진관의 사진이 기록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수동적 의미에 머물지 않고 고객들이 원하는 이미지로 사진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변화한 것이다. 즉, 연출에 의해 고객들이 원하는 이미지로 사진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였다.

2. 가족사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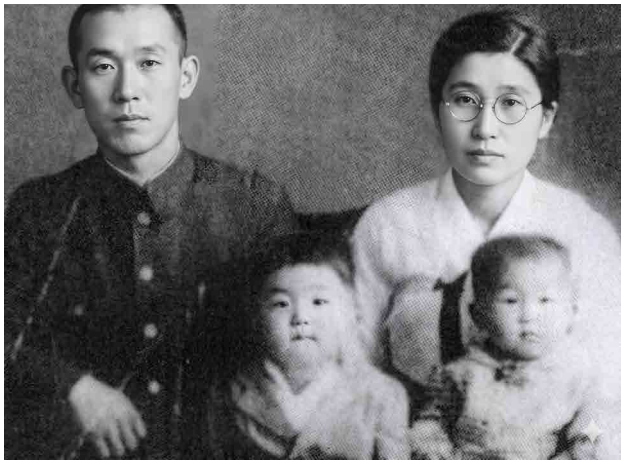
1) 초창기~1940년대

일제시대까지의 가족사진은 아기 돌을 기념하여 찍은 핵가족 사진, 집안 어른의 회갑이나 생신을 기념하여 십수명의 대가족이 대청마루 앞에서 찍은 사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시대의 돌기념 가족사 진 속에는 직계가족은 아니지만 가까운 친척(이모 또 는 고모, 삼촌)등이 함께 등장하기도 한다





일제시대 말 경부터는 반신상의 사진들도 많아지기 시작했고 돌 가족사진은 반신상이 대부분이었다.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돌 · 가족사진이라 하여도 제 법 큰 아이까지 여러 명의 자녀를 거느린 사진들이 나타나는데 인원수가 많아질수록 전신사진으로 촬영되 었다. 5~6명의 가족사진도 어린아기의 돌을 기념하여 찍었으며, 나머지 아이들이나 부모 모두 눈을 똑바 로 뜨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집안 어른의 생신을 기념하는 대가족 사진은 한가운데에 어른 두 분이 앉고 양옆으로 아이들이 배치된 후 그 뒤로 자식, 며느리들이 나란히 남녀로 나뉘어 정 열한 사각형의 단체사진이었다. 이 때는 직계자손뿐 아니라 삼촌이나 고모들도 모두 참석하여 그들의 가 계도를 한눈에 읽을 수 있다. 혈연으로 맺어진 그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가족사진 속의 일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 당시에 가족사진을 찍을 수 있는 집안이라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계층에 속하였고 마찬가지로 사진관들도 신식문물을 다루는 고급 직종에 속했다. 이 때의 집안 가족사진에 나타나는 집안 어른들의 단정한 자세, 꼬장꼬장한 눈빛 등은 기품이 있고 위엄이 엿보인다. 뒤에 늘어서 있는 자식들도 양복을 입고 구 두를 신은 신사들이며 여성들도 단정한 한복을 차려 입고 있다. 복장으로만 보아도 신식교육을 받은 자식 들이며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임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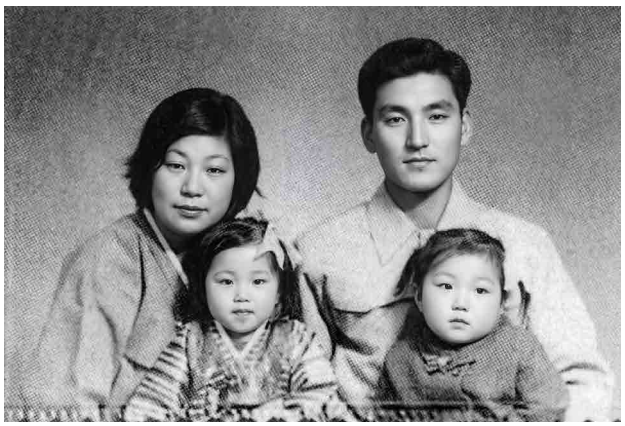


2) 1950~60년대

해방이 되고 한국전쟁을 겪고난 뒤인 1950년대, 60년대의 가족사진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돌을 기념하여 찍은 사진과 생신, 회갑을 맞는 어른을 중심으로 한 가족사진이 많았다. 어느 정도 사진관 사진의 대중화가 이루어진 이 시기에는 돌이 된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핵가족의 사진이 대부분이었다. 더 이상 고모나 이모 등의 친척, 가족 이외의 사람 이 가족사진에 등장하지 않고 온전히 핵가족 중심의 가족사진이 많아졌다. 이 시기의 사진은 대부분이 명함판이거나 현재의 3”×5”보다 작은 중판 크기가 많고, 가장 어린 자녀를 어머니가 안고 나머지 어린 자식들을 부부가 앉은 앞자리에 세워둔 구도가 많다.



많은 가족사진들이 7부사진(무릎까지 나오는 반신 상)으로 제작되었고 배경은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 았다. 배경으로 보아 일제시대의 사진에 비해 실내 인테리어가 그다지 고급스럽지 않은 영세 사진관에서 제작된 사진들이 많았다. 인물들의 앉은 자세나 구도에서도 일제시대 사진에서 느낄 수 있는 당당함이나 기품은 사라졌고 그 순간의 기록에 충실한 사진들이 주류를 이룬다. 사진의 크기는 작아지고 비용이 저렴해지면서 영업 사진관들은 일반 서민들의 사진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60.'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진관은 오락과 문화적 공간이 절대 부족했던 당시 친구들끼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함께 사진을 찍으러 가고 또 그것을 찾아서 서로 나누어 가지는 일종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마치 '90년대 후반인 최근 청소년들이 이른바 '스티커 사진을 찍어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과 같은 일이다.

1970년대에는 베트남에 파병된 군인들에게 보내기 위한 가족사진이 등장하는데 가장을 베트남에 보낸 후 남은 가족들끼리 찍은 사진이 많이 보이는 것이 이 시기 가족사진들의 특징이다. 50, 60년대에 비해 훨씬 더 대중화된 70년대부터는 결혼기념일에 촬영한 가족사진과 중고등 학생이된 큰 자녀들을 동반해 찍은 가족사진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부모는 가운데 있고 그 뒤로 교복을 입은 자녀, 그리고 국민학생인 그 아래의 자녀들이 올망졸망 좌우로 늘어선 병렬형 구도의 가족사진이다. 이런 사진들은 자녀들이 교복을 입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부모들에 의해 생겨난 사진이었다.



다음 호에 계속


연/구/논/문(1)

가족사진에 대한 연구

김미애

사진가 김미애 씨는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에서 사진디자인을 전공했으며, 졸업 논문에서 「가족사진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가족사진에 관한 논문으로는 김미애 씨의 논문이 국내에서는 처음 연구 발표되었으므로, 우리 협회와 일찍부터 부분이 많아 앞으로 및 회에 걸쳐 회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김미애 씨는 현재 시내에 작업실에서 각종 홍보책자의 사진을 작업하고 있다. (편집자 註)

1. 서 론

1. 연구 목적

한국의 사진역사는 개화기의 사진도입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로 장족사진 활동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사진이 대중화 되기 전인 일제시대의 사진관 영업활동은 예술사진 활동과 함께 어느 정도 언급되어 있으나, 그것은 그 당시의 장족 사진가들이 초상사진관업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해방 이후에 일반 대중들의 실용적인 요구에 의해 계작된 초상사진, 가족사진, 기념사진 등 사진관 사업실태에 관한 연구 활동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진은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한다. 한국 사진사에서 사진관 가족사진은 그 시대의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 속에서 한국 가족의 변화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영업사진관에서 계작된 가족사진을 사회적 · 조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가족의 변화가 가족사진의 구도와 스타일(Style)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 대량 소비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의 가족사진을 조형심리학적 ·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88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베이비 포모, 웨딩 포토와 함께 가족사진의 수요도 크게 늘어났는데,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제작된 우리나라 영업사진관의 가족사진을 조형심리학적 ·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본 논문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논문의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을 밝혔고, 2장에서는 30년 이상 경력의 영업사진관 운영자 5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영업사진관의 영업 환경과 가족사진의 변화를 알아 보았으며, 수집한 가족사진들을 중심으로 구도와 스타일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과거 특색 가족사진은 한국문화진흥원에 소개된 작가들의 일제시대 가족사진과 기타 인쇄 매체에 나타난 사진, 그리고 개인 소장 사진을 수집, 참고하였다. 해방 후의 가족사진은 주변에 있는 사진들을 개인적으로 수집하였으며 현대의 가족사진으로는 '사단'지에 게재된 100여 점의 가족사진을 참고로 하였다.

3장에서는 대한프로사진기협회에서 발간하는 '사단'지의 표지 사진을 중심으로 가족사진 주도의 표를 조사했다. 게재된 가족사진 100여 점을 참고하여 현대 가족사진의 구도와 스타일의 특징을 찾아내고, 가족사진의 대표적 구도와 스타일을 조형심리학적, 사회학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사진 4

2) 1950~60년대

해방이 되고 한국전쟁을 겪고난 뒤인 1950년대, 60년대의 가족사진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돌을 기념하여 찍은 사진과 생신, 회갑을 맞는 어른을

142 대한프로사진기협회

144 대한프로사진기협회

145

참고문헌

1) 강상규, 한국사진사, 서울, 형설출판사, 1976, 16쪽

2) 인터뷰, 김헌(1998)

3) "1970년대까지만 해도 명절은 사진관이 제일 바쁜 날이었다. 명절날이면 새벽 일찍 제사를 지내고 곧바로 문을 열어 일을 하였는데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손님이 많았다. 주로 가족들이 와서 사진을 찍었다. 그렇게 명절날에 가족사진을 찍은 이유는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기도 하고, 또 당시만 해도 명절날에 제일 좋은 옷과 신발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진 찍기에 적당한 날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렇게 명절날 촬영이 끝나면 저녁에 같은 지역 사진사들끼리 모여 술을 한잔씩 하면서 서로 몇 건을 찍었는지 이야기를 하곤 했다." : 인터뷰, 박성복(소공스튜디오), 1998.

현상사고

| 글 이덕용 홍보이사·동대문지부 부지부장



얼마 전에 120mm 슬라이드 두 롤을 모 현상소에 현상을 맡겼다. 그 현상소는 국내에서는 제법 큰 현상소로서 제일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사진 업계에 훌륭한 문화 사업도 하고 있는 믿을 만한 업소이다. 현상 결과 두 롤 중에서 한 롤은 현상이 잘 되었고, 한 롤은 "미촬영"으로 새까맣게 된 필름을 돌돌 말아서 보내 왔다.

사진을 여러 번 찍었으나 처음 있는 일이고, 핫셀브라드로 정확하게 직접 필름도 장전했고 일일이 노출계로 재면서 한 컷씩 번호를 보아 가며 틀림없이 잘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진이 안 찍혔다는 것이 도무지 촬영을 한 당사자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았다. 더구나 큰 현상소에서 한 통만 잘못 현상할 리는 더욱 없는 일인 것 같았기 때문이다. 기계를 점검하여도 이상이 없었다.

그래서 그 현상소의 슬라이드 현상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았으나 "미촬영"이라는 답변이었다. 하도 이상하여 그 필름과 접수 봉투를 자세히 점검하여 보았다. 그 결과로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누군가 필름을 바꿔 놓았다. 우연히 바뀐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시 현상소에 연락하여 책임 있는 이사분을 소개받아 전화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한 뒤 필름을 찾아 줄 것을 부탁하였다. 미촬영되어 온 문제의 필름은 접수 봉투의 라벨 번호와 필름 면에 붙어 있는 라벨 번호는 동일하고 또 동종의 필름이므로 이상이 없는 듯 보였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필름의 라벨 번호가 옮겨져 붙은 것이 분명했다. 원래의 필름에서 미촬영한 필름으로 옮겨 붙인 것이다. 그리고 미촬영된 필름에 붙였던 라벨 번호는 떼어 없어졌고 다만 현상 시 라벨이 붙어 있으므로 현상이 안 된 유제면만이 라벨 자국을 분명히 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국 옆에 원래의 문제 필름 라벨 번호가 붙여져 있는 상태였다. 또한 현상 안 된 필름 베이스의 라벨 자국에는 현상 시 집게로 집어서 구멍이 뚫어져 있으므로 라벨 종이가 함께 뚫어져 있어야 하는데 옮겨진 라벨 번호에는 전혀 뚫어진 흔적이 없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에 작업 도중 맡긴 필름에 스크래치(?)가 생기거나 하여 문제가 되니 이미 현상된 다른 미촬영 필름에다가 라벨 번호만 옮기고 마치 미촬영된 것처럼 미촬영 필름을 보내 온 것 같은데 "당사자만은 이 사실을 잘 알 것이니 속히 원래의 필름을 찾아 몇 장 망가진 대로라도 보내 주면 몇 컷이라도 쓸 수 있을 테니 조사하여 성의를 가지고 찾아 주어야 나의 피해가 적게 되며 더 이상의 책임은 묻지 않겠습니다."고 단단히 부탁을 드렸다. 그리고 며칠 후에 답변의 전화가 왔다.

현상소에서는 그러한 사고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만일 부득이 사고가 발생할 시는 담당자가 즉시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라벨 번호는 붙인 자리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접수 봉투의 번호와 같으면 그것이 틀림없이 맡길 때의 필름이며 한마디로 천부당한 소리라는 것이다.

시간이 없어서 나가 볼 수는 없으니 집배원에게 필름을 들여보내라고 했다. 그래서 문제의 필름을 보낼 수는 없고 시간 허락되는 대로 나와서 직접 보면 쉽게 판별할 수 있을 테니 조속한 처리를 부탁했다.

그 후 여러 날이 지나고 수차 연락을 하여도 현상소에서는 나와 주지를 않았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이러한 사건을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자니 소비자를 너무 업수이 여기고 사진인의 체모가 농락당하는 기분이고 문제를 밝히자니 피곤하고 귀찮은 일이다.

많은 날을 생각 끝에 글을 쓰기로 했다. 사진이라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그 문제의 필름만 해도 전시 사진 작

품과 모 업체의 카탈로그용 원고를 찍은 것으로 모델 두 명과 특수 의상이며 시일에 쫓기는 카탈로그까지도 원고를 넘기지 못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낭패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큰 현상소에 대한 믿음의 손실이다. 더욱이 염려스러운 것은 만에 하나라도 이번 일의 성공(?)으로 제2의 "미촬영" 사건이 발생한다면 어찌하겠는가 싶다. 실로 생각할 수 없는 아찔한 일이다.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가 있게 마련이다. 허나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덮어 상처를 키우기보다는 빨리 문제를 직시하고 망가진 대로의 필름이라도 되돌려 주어 피해를 최소한 줄여 주려는 성의가 있어야 될 줄 안다.

이 기회에 몇 가지 더 적을 일이 있다. 나는 그 문제의 현상소와 10년을 넘게 거래를 하며 특약점을 맺고 있어 그동안 대부분의 일은 잘했으나, 반면에 작은 실수도 많이 있었다. 그때마다 말로 건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 필자는 현상소를 위해서라도 그러한 점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 번은 톱프콘 호스만 6X9"로 결혼 사진을 찍은 것을 인화 의뢰하였으나 인화된 사진이 부분적으로 핀트가 선명치 못했고 확대기에 이상이 있는지. 옆부분과 밑부분이 핀트가 흐리게 나왔다. 재인화를 넣었다. 한참 후에 다시 나온 것이 마찬가지여서 재인화를 넣으니 『찍기를 그렇게 찍은 것이므로 더 이상 되지 않는 것입니다』고 친절한 충고(?)의 글을 접수 봉투에 정갈하게 써서 되돌려 보내 왔다.

시간이 없고 하는 수 없이 규모가 작은 D 현상소에 지급 인화를 해야 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납품하기 직전에 그 문제 현상소의 집배원이 그 선명히 나온 사진을 보고서야 먼저 사진을 모두 회수하여 인화료를 공제하여 준 일이 있었다.


넌 쎈 스

이 덕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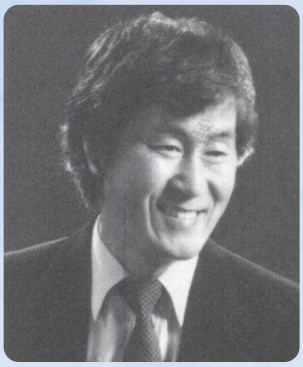
현상소 자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고 귀찮아지면은 그제야 나가서 적당히(?) 타협해 버리면 된다는 무성의한 태도를 반복해서야 되겠는가 싶다. 그동안 업소에서 고객에게 당해야 하는 고충과 고객에게서 손상당하게 되는 신뢰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재인화 시는 무엇보다도 신속히 처리하여 주어야겠으며 사고 현상에 있어서는 미연에 방지하고 부득이 발생 시는 변명이나 책임 전가가 아닌, 사과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인 줄 안다.

또한 사진 공모전을 해 놓고 기대만큼의 작품 수준이나 출품 점수가 적다는 이유로 약속된 시상을 줄이는 행위는 마치 마라톤 대회를 열어 놓고서 기후도 안 좋고 참가한 선수들의 기록도 좋지 않으니 첫 번째로 들어온 선수에게 3등이라고 억지를 쓰는 "넌센스"가 아닌가 싶다.



마그네슘 시절의 추억

| 글 윤석희 대구지부 금백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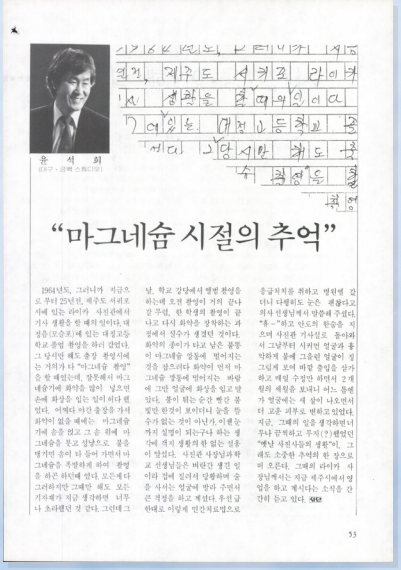
1964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라이카 사진관에서 기사 생활을 할 때의 일이다. 대정읍(모슬포)에 있는 대정고등학교 졸업 촬영을 하러 갔었다. 그 당시만 해도 출장 촬영 시에는 거의가 다 "마그네슘 촬영"을 할 때였는데, 잘못해서 마그네슘기에 화약을 많이 넣으면 손에 화상을 입는 일이 허다했었다. 어쩌다 야간 출장을 가서 화약이 없을 때에는 마그네슘기에 솜을 얹고 그 솜 위에 마그네슘을 붓고 성냥으로 불을 당기면 솜이 타들어 가면서 마그네슘을 폭발하게 하여 촬영을 하곤 하던 때였다.

모든 게 다 그러하지만 그때만 해도 모든 기자재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초라했던 것 같다. 그런데 그날, 학교 강당에서 앨범 촬영을 하는데 오전 촬영이 거의 끝나 갈 무렵, 한 학생의 촬영이 끝나고 다시 화약을 장착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생겼던 것이다.

화약의 종이가 타고 남은 불똥이 마그네슘 깡통에 떨어지는 것을 잡으려다 화약이 먼저 마그네슘 깡통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만 얼굴에 화상을 입고 말았다. 불이 튀는 순간 빨간 불빛만 한 것이 보이더니 눈을 뜰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젠 눈까지 실명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객지 생활의 한없는 설움이 앞섰다.

사진관 사장님과 학교 선생님들은 별안간 생긴 일이라 겁에 질려서 당황하며 술을 사서는 얼굴에 발라 주면서 큰 걱정을 하고 계셨다. 우선 급한 대로 이렇게 민간 치료법으로 응급처치를 취하고 병원에 갔더니 다행히도 눈은 괜찮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지으며 사진관 기사실로 돌아와서 그날부터 시커먼 얼굴과 흉악하게 불에 그을린 얼굴이 징그럽게 보여 바깥 출입을 삼가고 매일 수정만 하면서 2개월의 세월을 보내니 어느 틈엔가 얼굴에는 새살이 나오면서 더 고운 피부로 변하고 있었다. 지금,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하고 무지(?)했었던 "옛날 사진사들의 생활"이, 그래도 소중한 추억의 한 장으로 떠오른다. 그때의 라이카 사장님께서는 지금 제주시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간간이 듣고 있다.


윤 석 희

"마그네슘 시절의 추억"

작은 소유권

| 글 김귀환 서울·마포지부 원색사진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提言

"작은 소유권"

김 귀 환
(서울 · 마포지부 원색사진관)

사진관을 오래하다 보면 별일을 다 경험하게 된다. 다음에 소개하는 내용을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 하셨으리라 본다. 요즘은 세태가 각박하고 이기가 만연하여 사람이 모두 타산적이고 약삭빠르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사진을 찍으면 열명중 두세명은 꼭 "필름(원판) 주시나요"하고 묻는다. 그럴때 나는 명쾌한 정답을 몰라 당황한다.

상용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원판은 저희가 일년간 잘 보관하여 원하실때 언제나 인화해 드리겠으니 촬영한 달만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한다. 내 말에 수긍하고 가는 손님이 많이 있으나 어떤 손님은 악착같이 줄것을 요구한다. "내 돈 내고 찍은 필름인데 내 것 내가 가져 가겠다는데 안 주는 이유가 뭐요?"하며 따진다.

이런 땐 여러분 같으면 뭐라 대답하겠는가? 나는 그 물음에 몇점짜리 답이 될진 모르지만 이렇게 말한다. "손님이 원하신 것은 사진이지 원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판은 사진관 소유이며 법으로도 양도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나는 그런 법이 있는지조차 모르나 우선 그렇게 말하고 본다) 이렇게 말하면 손님은 곧 "이다음 달에 이사를 가는데 원판을 이곳에 둬야 필요없지 않느냐?" 하기도 하고 "다음에 꼭 이곳으로 인화하러 올테니 달라"고 사정도 한다.

그럴 땐 나는 또 이렇게 솔직히 대답한다. 『사진관에서는 사진을 찍어야 먹고 삽니다. 더하기나 해줘서는 힘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는 손님 다 원판을 드리면 누가 사진을 찍겠습니까? 그 필름으로 10년까지 빼어 쓸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셔터(폐업을 의미)를 내리고 맙니다. 그러니 필름 안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한 자구책 입니다.』 사실 사람에 따라서는 사진찍기를 싫어하여 심지어는 사람이 멀정히 살아있는데도 옛날 찍은 증명사진을 들고와 복사해 달라는 이도 있다.

지난 13대 국회의원 선거때 경험한 일을 한토막 소개하고자 한다. 나는 선거 참관인으로 주민증을 보며 본인여부를 열심히 확인 하였는데 사진과 실물이 많이 다른 사람들이 의외로 여럿 아니 많이 있었다. (특히 여자가 많음) 그때마다 "본인이 아닌데요"하면 펄쩍 뛴다. 그전 때, 아니면, 처녀때 찍은 사진 예요…… 이렇듯 한번 찍은 사진이나 필름으로 10여 년을 써 먹으니 사진관이 갈수록 않될 수 밖에……

사진인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합시다. 근시안적으로 생각해 봐서 당장 이사가는 사람은 필름을 줘도 괜찮다고 생각되겠으나 전 사진인을 한식구로 묶어 생각해 보면 어떨까? 답은 스스로 내리기 바란다. 그리고 손님이 필름을 요구했을때 어떻게 대처 하는지 좋은 내용이면 발표해 주기 바란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추억이 계속되는 시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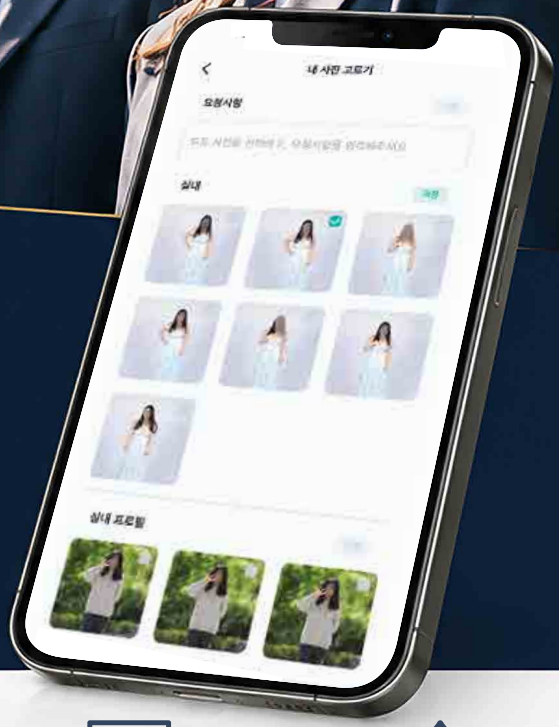
종이 앨범의 감성과
디지털의 편리함을 하나로



DIGITAL GRADUATION ALBUM

e.ALBUM

e.앨범 · 맞춤형 졸업사진 셀렉 APP



학생들의웃음, 친구들과의 순간, 그리고 학교의 기억까지.
이제 졸업 앨범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다시 만날 수 있는 "살아있는 추억"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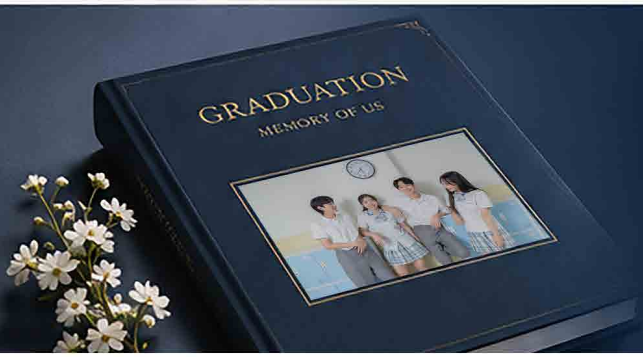
모바일 디지털 앨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감상

졸업 영상 탑재
졸업식, 학교 행사 등
영상 콘텐츠로
생생한 추억을

학급 커뮤니티 기능
졸업 후에도
친구들과 소통하며
추억을 이어가는 공간

사진 선택 연동
편리한 사진 선택 시스템
연동으로 쉽고 빠르게
앨범 제작

안전한 보안 시스템
캡처 방지와 같은
안전한 보안 기술로
소중한 추억을 보호



PRINT × DIGITAL × MEMORY

인쇄의 가치와 디지털 경험을 함께 제공합니다.

학교는 더 편리하게
- 인쇄+디지털 통합 운영
- 학생 만족도 향상
- 최신 디지털 트렌드 대응
- 학교 브랜드 이미지 강화

학생은 더 즐겁게
-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
- 영상과 함께 생생한 추억
- 친구들과 지속적인 연결

MEDIA P & P
주식회사 미디어피앤피

40년 이상의 사진·인쇄 제작 경험과
최신 디지털 콘텐츠 기술이 만나
학교와 학생 모두를 위한
새로운 졸업 앨범 문화를 만듭니다.

40+
40년 이상의
제작 경험

전국 학교
제작 경험 보유

고객 만족도
높은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www.mediapnp.co.kr











온라인 바로 주문 서비스

https://smartstore.naver.com/daejeoncanon

스토어 바로 가기 QR 스캔 !!!

온라인 공식 판매점







Canon

㈜카메라대학병원

매장: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68-1(은행동 45-14)
주차: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7-1(대원주차장)
Tel : 042)254-1110 E-mail : cameradr@hanmail.net



CEO 이 승 호

회보 원고 모집 안내

| 한장훈 편집국장

회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회보는 전국 16개 지회 회원들의 목소리로 채워지는 지면이다.
사진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 지회 활동의 생생한 기록, 그리고 회원 개개인의 소소한 일상까지 모두 회보의 소중한 자산이 된다.
이에 편집국은 다가오는 호에 실을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

모집 분야

- 사진 현장 이야기: 촬영 후기, 사진관 운영 경험, 장비 활용기 등
- 지회·지부 소식: 세미나, 총회, 교육 프로그램 등 지역 활동 기록
- 교육 칼럼: 사진 기술, 경영, 마케팅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전문 지식
- 회원 동정: 수상, 전시, 이색 소식 등 회원 근황
- 사진 작품: 계절감, 지역색이 담긴 회원 작품 및 촬영 후기

원고 형식

- 분량: 원고지 3~5매(A4 1~2매) 내외
- 형식: 한글(HWP) 또는 텍스트(TXT) 파일,
  사진 첨부 시 원본 이미지 파일 별도 제출
- 사진 포함 시 촬영 일시, 장소, 촬영자명 병기

제출 방법

- 본 협회 메일: kppa1955@hanmail.net
- 한장훈 편집국장 메일: jangphoto@naver.com
  ※ 원고 발송 시 성명, 소속 지회, 연락처를 함께 기재

제출 기한

- 매달 초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전월 20일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을 넘길 경우
  사전에 편집국으로 연락하는 것을 권장한다.

유의 사항

- 게재된 원고는 지면 사정에 따라 일부 수정 또는 축약될 수 있다.
-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인용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하는 내용은
  게재하지 않는다.



퀴즈 이벤트

퀴즈풀고 선물받자!

· 이달의 퀴즈 ·

퀴즈 01 사진진흥법 대비한 본 협회 민간자격증의 이름은?

퀴즈 02 캐논촬영대회 금상 수상자의 이름은?

퀴즈 03 KPPA 타임머신 현상사고 기고자의 이름은?

* 협회 홈페이지에 올려 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우리 사장님들 모두~

잘됐으면 좋겠다



홍보대사
탁재훈

홍보대사
김나희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복리 이자
목돈 마련

신속한
비대면 대출

공제금
압류 금지

KBIZ 중소기업중앙회

가입문의 1666-9988

*취급은행 :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심의필 제26-025호(2026.03.06 ~ 2027.03.01)

Canon
캐논코리아 주식회사

EOS R SYSTEM

딥러닝 기반 Accelerated Capture 이미징 시스템

어떤 순간에도 준비된 당신만의 TEAM



인간의 감각이 딥러닝과 만나다

EOS R5 Mark II

45.0 MEGA PIXELS CMOS | DIGIC Accelerator | ISO 51200 | ACCELERATED CAPTURE | HDR High Dynamic Range | Dual Pixel Intelligent AF | Eye Control | Up to 30 Frames Per Sec | Wi Fi CERTIFIED | Bluetooth® | https://kr.canon